

신약성서 27권의 핵심 메시지

조동호 교수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Main Messages and Expository Sermons of 27 New Testament Books

Dong-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4, 2007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본서 『신약성서 27권의 핵심 메시지』는 오랜 신약성서개론 강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 각권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쓰게 된 것은 1996년 하반기 대전극동방송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신약성서 각권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설교하게 된 것은 2004년 전반기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였다. 이 두 개의 글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 『신약성서 27권의 핵심 메시지』이다.

본서는 신약성서개론을 배우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서나 평신도들이 신약성서 각권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할 때, 또는 목회자가 신약성서 각권을 교회에서 설교하고자 할 때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간략하게 정리한 총론과 신약성서 각권에 대한 해설과 함께 그 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담은 27개의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신약성서 27권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004년 9월 1일
황산별 연구실에서 조동호

· 4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차례

머리말	3
총론	7
1. 서론	7
2. 신약성서의 형성	11
3. 복음서 비평	16
4. 복음서 문제	21
사복음서/마태복음(Matthew)	25
마가복음(Mark)	41
누가복음/사도행전((Luke/Acts)	59
요한복음(John)	79
선교서신/테살로니가전후서(Thessalonians)	99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13
고린도후서(2 Corinthians)	121
갈라디아서(Galatians)	129
로마서(Romans)	137
옥중서신/에베소서(Ephesians)	145
빌립보서(Philippians)	153
골로새서(Colossians)	161
빌레몬서(Philemon)	169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디도서(Timothy/Titus)	175
공동서신/히브리서(Hebrews)	195
야고보서(James)	211
베드로전서(1 Peter)	219
베드로후서(2 Peter)	229
요한서신(John)	237
유다서(Jude)	257
요한계시록(Revelation)	265

· 6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총론

1. 서론

1) 구약과 '신약'의 의미

신앙인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구약'이란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이고, '신약'이란 재림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옳은 답일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예언자들의 회복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약성서는 대부분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고 있다. 예언자들의 활동표준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성실성에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예언서들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유대민족의 성실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던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을 펼쳤다. 회개운동 후에 예언자들이 펼친 또 다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운동이다. 회복운동이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써 그 중심에 메시아 도래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때인 것이다.

그러면 예언자들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의 근거가 되었던 '언약'은 무엇인가? 성서에서 말하는 언약은 '약속'이나 '예언'이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옛 언약'이란 뜻의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써 맺은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

민이 된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합의한 계약인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서를 '언약서'라 부른다. 이 언약서가 구약성서의 핵심이고, 이 언약과 관련된 유대인들을 신약성서에 기반을 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 선민'이란 뜻의 '구약공동체'라 부른다. '옛 언약 공동체'란 유대인들이 과거의 선민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구약'이란 옛 언약서를 말하고, 이 옛 언약서에 기초한 민족이 구약공동체요, 옛 선민이며,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이란 무엇인가? '신약'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말한다. 이 '새 언약'은 신자들이 침례(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행한 신앙고백이며, 그 내용은 신약성서의 엑기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새 언약 공동체요, 새 선민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써 맺은 언약공동체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언약공동체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을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서를 이루는 대부분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말씀들이고, 신약성서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침례(세례)서약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서를 구약성서 혹은 신약성서라 부르는 것이다. 이토록 언약이란 말이 성서이해에 중요한 열쇠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연속적 전기형태와 성서의 배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성서는 종교적 공동체의 창설자와 그의 계승자들이 연결되어 등장하는 연속적인 전기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연속적 전기의 구조적인 특징은 세 등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창설자의 생애;
 둘째, 제자들과 후계자들에 관한 이야기;
 셋째, 학파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 그것들이다.

이 연속적 전기형태는 헬레니즘시대의 산물로서 24권으로 되어 있던 구약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문화권속에 흠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구사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전 250년경부터 주전 100년경 사이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셈투아진트, LXX) 헬라어개역 구약성서에 반영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헬라어개역 구약성서에서는 부피가 큰 책을 상하권으로 나눴고, 한권으로 묶여져 있던 책을 다섯 권으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39권으로 그 권수를 늘렸으며, 기록된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연속적 전기형태로 재배열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서가 유대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글 다섯 권을 맨 앞에 배열시키고, 그 다음에 후계자들의 글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서를 배열한 다음에 예배문서들인 성문서들을 놓고 마지막에 예언서들을 놓았다. 이들 가운데 모세오경과 역사서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배열시켰고, 성문서들과 예언서들은 대체로 크기 순서로 배열시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서도 연속적 전기형태로 배열되고 있다. 물론 기록도 모두 헬라어로 되었다. 당시에는 문어체 헬라어와 구어체 헬라어가 있었는데, 신약성서에 사용된 헬라어는 구어체인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과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신약성서의 배열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언급한 사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들과 공동서신들이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다. 이들 서신서들은 헬라어개역 구약성서와 비교할 때 성문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배열시키고 있다.

거듭 언급하지만, 헬레니즘 영향권에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신구약 성서는 기록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연속적 전기형태를 따라 가급적 크기 순서를 배열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3)신약성서의 기록순서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는 바울서신들이다. 특히 바울의 제2차 여행 때인 주후 52년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교회가 세워지고 22년 만에 처음 신약성서의 일부가 쓰인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록된 문서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태가 45년경에 『로기아』를 아람어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로기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일명 'Q'라 불리는 가설문서일 것이라고 본다. 내용은 '주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어록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고, 『로기아』란 이름의 책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추측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데살로니가전후서 다음에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이다. 이들 서신들은 54-58년 초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일컬어 바울의 '초기서신' 혹은 '선교서신'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기록된 서신들이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다. 이들 네 개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체포된 직후에 갇혔던 가이사라에 주둔한 총독부 감옥에서 58-60년경에 썼거나 네로의 재판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가 셋집에 연금 당했던 61-6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누가가 누가복음에 실린 자료들과 사도행전에 실린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예루살렘이 붕괴된 70년대 이후로 본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누가복음보다는 10여 년 전에 쓴 원누가복음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누가는 마태복음의 공통자료인 'Q'로 명명된 주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어록과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원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고, 70년 예루살렘 붕괴직후에 나온 마가복음자료를 53퍼센트 가량 포함시켜 현재의 누가복음서를 완성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뒤야 한다. 이런 가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다수의 학자들은 4복음서들이 7-8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자료의 92퍼센트가 마태복음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으로써 85년경으로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96년에 기록된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공동서신서들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의 기록연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대체로 60년에서 90년경까지로 보고 있다. 아무튼 신약성서 27권은 모두가 일세기 이전에 완성되었고,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다. 성서는 쓸려고 쓰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을 갖고 있고, 그 시대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신약성서의 형성

1)성서의 기록

2천 년 전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보다도 또 구약성서 39권보다도 더 많은 문서들이 남아있고, 39권과 27권에 들어 있는 책들을 '정경'이라 부르며,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은 외경과 위경으로 나뉜다. 외경은 정경외적인 책이란 뜻이고, 위경은 책의 제목이 가짜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에녹서'가 그것이다. 에녹은 고대인인데 어떻게 2천 년 전에 책을 쓸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필요란 신

양인들의 고난, 박해로 인한 배교와 이단의 위협,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과 질서 확립 등을 말한다.

성경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신앙인에 의해서 신앙적 목적으로 기록된 일종의 설교(kerygma)이다. 성경은 신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에 의해서 기록된 신앙체험에 근거한 삶의 고백서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신앙인에 의해서 경험되어 졌을 때에 성령의 감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해석되는 수가 종종 있다. 여기에는 사건 발생시의 삶의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사람의 삶의 정황이 있다. 사건의 해석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 이용하여 편집함으로써 해석의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나 선포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해석자의 글 속에는 해석자의 신앙적 관점과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 동시에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해석의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인간의 단독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저자들의 고백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수한 전달보다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성경이 해석된 역사(geschichte)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전달한 역사임을 말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신앙이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부활의 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들은 성령님을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마누엘)으로 믿었다. 그들은 인간을 부족한 죄인으로 고백하였다.

신앙인들은 창조신앙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이 물질세계가 본래 좋은 것임을 믿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계약과 책임에서 보았다. 이 우주와 우주의 역사에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삶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과학과 학문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창조는 윤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인간이 피조물임을 믿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었다.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에 대해서 말한다. 고난에서의 승리,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한다. 시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 성경의 확정

현재의 신약성서가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는 동방의 정교회의 경우 367년에 「제39서간」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현재의 27권을 추천함으로써 이뤄졌고, 서방의 가톨릭교회의 경우에 397년에 북아프리카 칼타고에서 이뤄졌다. 이 말은 신약성서가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에는 각 교회들이 사도성이 담겨 있다고 믿어지는 문서들을 수집하여 예배 때에 독서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를 예배 때에 독서용으로 사용한 전례는 유대교의 회당예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전통은 바벨론 유배이후에 형성된 전통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예배 때에 언약의 말씀을 봉독하는 전통은 기독교회로 이어졌고, 그 전통을 가진 서방의 가톨릭교회와 동방의 정교회 등의 예배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차례씩 토라, 곧 모세오경을 완독한다. 매주 회당예배 때에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 34장까지 공개적으로 몇 개의 장씩 읽는다. 심함 토라 때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 때가 우리의 추석명절, 곧 한가위 보름달이 있고난 지 1주일 후가 된다. 유대인들로서는 초막절 직후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다. 토라는 일년주기로 읽히는 일종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날 토라읽기를 다 마치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회당주변을 행진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토라와 더불어 회당에서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며 축하한다. 이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운반하는 명예가 주어진다. 이날은 물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축일이다.

매주 드리는 회당예배 때에는 토라읽기에 앞서 토라행진이 있다. 토라가 회당내로 운반되어질 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토라를 잡는다. 토라가 회중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혹은 때때로 기도서나 그들의 '탈리트' 곧 유대인 남성이 아침 예배 때 착용하는 어깨걸이로 책표지를 만진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혹은 그들이 토라를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입을 맞춘다. 정통주의 회당에서는 토라행진이 종종 여성 지정석 쪽으로 가지를 않는다. 여성은 보통 토라가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춘다. 또 토라읽기가 마친 후에 토라는 회중을 향하여 거양된다. 회중은 "브조트 하토라"(v'zot ha-Torah)를 낭송하면서, 보통은 손가락으로, 토라를 향하여 손을 뻗어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것이 전통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인 것이다.

토라행진과 유사한 복음서 행진이 가톨릭교회에서 복음서를 낭송하기 전에 이뤄진다.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예배 때에 복음서에서 한 곳, 그 밖의 신약성서에서 한 곳, 구약성서에서 한 곳, 설교와 무관하게 예배의 내용으로써 봉독된다. 유대교의 회당예배에서 모세오경에서 한 곳, 그 밖의 책에서 한 곳을 예배의 내용으로써 설교와 무관하게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성서가 수집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 때에 읽히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1450년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인쇄기술을 발명하기까지 손으로 쓰인 필사본들에는 사본들 사이에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사본 간의 이런 상이한 점들을 비교해서 진본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본문비평작업이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신약성서의 필사본들에는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이 76개

정도 있고, 4-9세기경에 쓰인 대문자 사본이 250개 정도, 9-15세기에 쓰인 소문자 사본이 2,800개 정도 있다. 이 밖에도 고대어로 번역된 개역판 및 성구집들이 있고,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5,000여 개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그리스 등의 기후가 지중해성이기 때문이다. 한 겨울에만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는 습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만 맞히지 않는다면, 썩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에서 신구약성서가 기록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닐 수 없다. 파피루스 사본들을 제외한 대소문자 사본들은 대부분 제본된 사본(Codex)들로써 양피지나 송아지피지에 쓴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들로써 바티칸 사본(B),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A) 등이 있다.

제본 사본이 나오기 전에는 두루마리 사본들을 사용하였다. 구약 시대의 성서들은 모두가 두루마리였다고 보면 된다. 고대 두루마리 책들은 다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길이가 11미터 정도를 넘지 못했다. 발견된 두루마리로써는 사해사본 두루마리(Scrolls/1947년 발견)가 가장 유명하다.

문서에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사용된 것은 소문자가 발명된 9세기 경부터이다. 그리고 장구별은 1228년경 켄터베리(Canterbury)와 랑톤(Stephan Langton) 대주교에 의해서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절구별은 1551년 프랑스의 인쇄공이었던 로버트 스테판누스(Robert Stephanu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본문비평의 도움으로 오늘날 우리는 원본에 99퍼센트가 회복된 대본 성서들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번역에 사용되는 대본(text)성경으로는 구약의 경우 *Biblia Hebraica Kittel*(BHK)과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있고, 신약의 경우 네슬·알란트의 *Novum Testamentum Graece*(NTG)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The United Bible Societies)의 *The Greek New Testament*(GNT)가 있다. 위의 각각 두 가지의 구약과 신약의 원문 성경이 달리한 것은 주로 본문 비평장치(난하주)이며, 본문은 거의 동일하다.

3. 성서 비평

성경비평방법은 역사비평방법과 문학비평방법으로 나뉘며, 역사와 문학 양편모두에 속하는 비평방법도 있다. 역사와 문학 양편 모두에 속하는 비평방법으로는 사회과학비평, 정경비평, 수사학비평 등이 있고, 그밖에도 성경필사본의 본문(text)을 연구하는 본문비평과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비평도 있다.

역사비평방법은 본문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문자적 배경과 그 본문의 기원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와 같은 역사비평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문의 발전을 연구한다고 해서 통시적 연구(diachronic)라고 부른다. 통시적(通時的)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본문이 최초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학비평방법은 최종 형태의 본문 자체와 본문에 내재된 다양한 본문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본문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구조주의비평, 설화비평, 독자-반응비평, 후기구조주의비평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를 공시적 연구(synchronic)라고 부른다. 공시적(共時的)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본문에 대한 문학적 이해에 있다. 따라서 저자와 관련된 가설이나 저자의 의도는 항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도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1)자료비평(Literary Criticism)

역사비평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비평방법으로써 18세기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문학비평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문학비평이란 말이 전혀 다른 비평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비평과 문학비평을 구분하고 있다.

자료비평은 문서에 쓰인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료비평의 가장 인기 있는 대상은 모세오경과 공관복음서이다. 신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이들 성경본문구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서가설들을 내놓았다. 모세오경에서는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가 혼합

되어 있다는 가설이, 공관복음서에서는 Q자료, 마가복음자료, M자료, L자료가 혼합되어 있다는 가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언어학적 비평(Linguistic Criticism)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라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고백한) 믿음의 글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성서의 언어는 기록 당시의 역사적 삶의 상황과 사람들에 한정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학적 비평은 1세기의 언어를 여러 각도로 연구하여 그 원 뜻을 찾고, 그 뜻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학문적 노력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비평의 결과로 사전이 편찬되고 신약용어 해설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게르하르트 키텔(Gerhard Kittel)의 『신약신학사전』이다. 구약의 경우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Moody Press)가 나와 있다.

신약성서의 언어가 구어체인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고대 문어체 헬라어와 다른 성서 헬라어를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영향 때문이거나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서가 당대의 살아있는 말로써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써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된 성서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어주게 되었다.

3) 비교종교적 비평(Religionsgeschichte)

비교종교비평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가 다른 고대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생성과정과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진화과정은 주변 종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히브리 종교는 단순히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종교 중의 하나로 연구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궁극적 근원으로 하며, 1세기 유대종교와 그레코 로망(Graeco-Roman) 종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빌어다 혼합시켰다고 보았다.

볼트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인구원, 예수님의 부활승천과 동정녀탄생, 주(Lord)사상과 영웅적인 기적행사 등을 차용해왔고, 그리스도의 구세주 사상도 근동지방의 신화(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신화¹⁾) 즉 죄지은 인간을 구원했고, 그를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빛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하여 빛의 세계에서 온다는 하늘의 구원자에 대한 신화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볼트만은 그리스 로마의 신비적 구원의 신화와 조로아스터교의 영지주의 신화가 합하여 신약사상의 배경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숭배신(신비종교)의 사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온다는 하늘의 구원자라는 사상(영지주의)과 혼합되었다는 것이다. 이 양자의 신화는 또 유대교의 인자라는 유대신화에 덧붙여져 재림사상으로 발전하였다고 비약한다.

4)양식비평(Formgeschichte)

양식비평은 예수님 승천 후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걸린 30-50년간의 공백 기간에 있었던 구전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양식비평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성이 없다는 견해로부터 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식비평가들은 복음서 기록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조작품으로 보게 하였고, 연대나 지리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재구성하는

1) 자라투스트라(Zarathushtra, 영어로는 Zoroaster)를 개조(開祖)로 하는 아후라 마즈다를 신앙하는 마즈다예배교(Mazdayasna)이다. 다리우스 1세 이래의 여러 왕의 비문에 아후라 마즈다에 대한 신앙이 표명되고 있다.

태초에 대립하는 두 영(靈)이 있었는데, 아후라 마즈다의 성령인 스펠타 마이뉴는 생명과 빛을, 사악한 영 앙그라 마이뉴는 죽음과 어둠을 택하였다. 우주는 이 양자의 싸움터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선사(善思)·선어(善語)·선행(善行)의 3덕을 쌓아야 하며, 사후에 영혼은 천국의 입구까지 와서 올바르게 믿은 자는 그곳에 있는 다리(칼이라고 한다) 위를 안내자의 인도로 무사히 건너 천국에 들어가나, 거짓으로 믿은 자는 발을 헛디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한편 조로아스터가 가고 3,000년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이 때 사오슈얀트라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고, 천국과 지옥에서 모든 인간이 부활하며, 산자와 더불어 녹은 금속으로 덮인 대지를 통과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자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한다.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양식비평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그것들의 역사적 상황 즉 삶의 정황(Sits im Leben) 속에서 평가해 보려는 강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복음서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었으나 복음서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역사적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 없으며, 신앙의 대상이 된 복음서에 실린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식비평이란 말은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 형태의 양식들로 구분하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예를 들면, 마르틴 디벨리우스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1)예증들(Paradigms), (2)설화들(novellen or tales), (3)어록들(sayings), (4)전설들(legends), (5)신화들(myths)로 구분하였고, 이들 양식들은 설교자, 교사, 이야기꾼이 선교적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볼트만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1)대화로 이뤄진 아포프테그마(apophthegma), (2)주의 말(Ich-Wort), (3)이적설화, (4)역사 설화와 전설로 나뉘서 설명하면서 대부분이 교회라는 삶의 자리(Sits im Leben)에서 만들어진 조각이라고 하였다.

5)편집비평(Redaktionsgeschichte)

편집사 비평은 전승을 문서화시킨 저자들의 신학, 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전승을 복음서로 편집한 저자들을 신학자들로 간주하여 그들의 신학적인 의도, 곧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편집하고 해석한 방법들과 의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비평방법이다.

1920년경 슈미트, 디벨리우스, 볼트만 이 세 사람의 독일 신약학자들이 양식비평을 주도한 반면, 1950년대에 군터 보른캄(Gunther Bornkamm), 빌리 마르크센(Willi Marxsen), 그리고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세 사람의 독일 신학자가 편집비평을 주도하였다.

보른캄은 처음으로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교리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로 마태는 그가 수집하고 배열한 복음 전승을 해석하였음을 밝혀내었다. 마르크센은 마가복음을 연구함으로써 마가복음이 한 사람

의 저서임을 발견하였다. 콘젤만은 누가복음을 연구함으로써 누가를 역사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자로 간주하였다.

6) 사회학적 비평(Sozialsgeschichte)

사회학적 비평은 196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양식비평이 교회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회학적 비평은 본문들의 삶의 자리를 전체사회의 틀 속, 즉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생태학적 요인, 사회 정치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다. 환언하면, 본문의 저자와 수신자가 처한 삶의 정황, 물품생산과 분배관계, 사회적, 종교적 제도와 기구 등의 사회적 측면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은 유물론적, 비판념론적, 혹은 사회사적 성서해석방법이다.

여기서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특권층과 소외층으로 나누어 대립관계에서 보고, 관념론적, 부르즈와적 역사관을 배격한다. 이런 역사관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사적 해석은 밑바닥의 민중의 입장에서 성서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성서의 해방의 소식을 '오늘' 여기서 '이들'을 위한 해방의 소식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비평은 실천을 인식론적 기초로 삼는다. 실천이라 함은 현실을 변혁하려는 정치적 혁명에 정위(定位)된 삶의 수행, 민중의 해방을 지향하는 삶의 수행을 뜻한다.

학자로서는 게르트 타이센(Gerd Theißen), 존 엘리엇(John Elliott), 로빈 스크록스(Robin Scroggs), 까잘리(Georges Casalis), 안병무 등이 있다.

이밖에도 성서가 기록되고 편집된 최종단계에 관심을 두는 문학비평들이 있다. 전승이 구성되고 전달된 구전단계와 그것이 기록되고 편집된 최종단계에 관심을 갖는 **전승사 비평(Tradition-historical Criticism)**, 개별 저자나 자료보다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 고전수사학을 성서해석에 적용한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언어의 차이를 파악하여 저

자의 종교적 신념체계를 밝히는 **구조주의비평(Structural Criticism)**, 복음서를 이야기 자체로 숙독(熟讀)함으로써 복음서의 내용을 밝히는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 성경을 문학으로 읽으면서 독자가 의미와 의의를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독자중심의 **독자-반응 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 인정된 패턴들 안에 있는 비일관성과 지배관계를 비판하고 들추어냄으로써 그것들로부터 가부장권이나 왕권을 해체하는 **후기구조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 성경의 가부장 교리를 해체시켜 재해석하는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cism)** 등이 있다.

4. 공관복음서 문제

1)공관복음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관’(synoptic)이란 ‘함께’(共) ‘보았다’(觀)는 뜻이다. 공관복음서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한다. 공관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통점들에는 첫째로 이 세 복음서의 기본적인 골격이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 ①갈릴리 지방에서의 전도여행
- ②이방인 지방에서의 전도여행
- ③예루살렘 여행
- ④예루살렘에서의 수난

둘째로는 사건이나 교훈에 대해서 기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 ①중풍병자 치료, ②금식문제, ③겨자씨 비유, ④오병이여의 기적,
- ⑤부자청년, ⑥바디매오를 고침, ⑦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 ⑧세금문제, ⑨베드로의 부인

차이점으로는 사건의 순서와 배열에서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어휘나 표현에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나타난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태는 사건 전에 교훈이 먼저 나오고, 마가와 누가는 사건 후에 교훈이 따른다. 마태는 행동(기적)보다 말씀에 우위를 두었기 때문이며, 마가는 말씀보다 행동(기적)에 우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태가 말씀의 복음을 기록하였고, 마가가 행동의 복음을 기록한데서도 알 수 있다. 또 마태는 행동보다는 사상이 앞서는 유대인(동방계)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마가는 사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로마인(라틴계)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나사렛에서 받으신 예수의 배척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중반에(막 6:1-6; 마 13:54-58), 누가에서는 초반에(4:16-31) 기록되고 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에서 배척을 주제로 삼고 있다. 복음서 후반부에 언급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고향에서의 배척사건을 예수의 공생애 첫 부분에 소개하였다.

마가에서는 수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교훈이(13:9-13), 마태복음에서는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것으로(10:17-22) 나타나 있다.

2)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 가능한 이유들

이런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고 설명하는 것이 공관복음서 문제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공통점을 공통자료의 사용으로, 차이점을 특수자료의 사용으로 사문서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통점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일 수 있다.

①공통자료 사용: 구전자료(케뤼그마를 포함해서 자주 언급된 자료들), 노트자료(Robert H. Gundry 주장), 기록된 문서자료(마가복음이나 Q자료), 등.

②사실적 사건 기록, ③강조와 반복의 필요성, ④성령의 영감.

둘째, 차이점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일 수 있다.

①독립적인 특수자료 사용(L자료, M자료 또는 구전자료 등)

②개인적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 배열, 편집, 해석 등을 달리한 표

현의 차이, ③배경(저자, 기록 장소, 연대 등), ④성령의 영감.

3)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한 가설들

공관복음서들 간에 발생하는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원복음서설(Theory of Urevangelium), 단편설(The Fragment Theory), 구전설(The Oral Theory), 상호의존설(Interdependence), 문서설(Documentary Theory) 등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쏟아내었다.

이러한 가설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래와 도식에서 보는 스트리터(B. H. Streeter)의 사문서설이다.



영국신학자 스트리터는 마가복음과 Q자료를 공통자료로, 마태(M)자료와 누가(L)자료를 특수자료로 구분하여 사문서설을 주장하였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저작된 복음서로, Q자료는 안디옥에서, M자료는 예루살렘 강화문서로, L는 구전적인 가이사라 전승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을 받아드리는 학자들은 마태복음 속에 마가복음의 92퍼센트가 누가복음 속에는 마가복음의 53퍼센트 정도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4)복음서 기원에 관한 거쓰리(Guthrie)의 제안

제1단계: 수난 기사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설교.

제2단계: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교리문답교육을 위한 구전 또는 기록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며, 초기의 양식은 아람어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로기아의 관련성은 고려될 수 있다.

제3단계: 베드로의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어록보다는 행동들이 더 많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제4단계: 마가복음이 저작된 후에 마태는 그 사본을 사용하여 교리문답 및 다른 자료들을 혼합하여 확대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자료

들 중에는 개인적인 회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을 것이다.

제5단계: 마가와 친분이 있었던 누기는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상당한 양의 자료수집이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제6단계: 처음에 교회들은 세 복음서들 가운데 한 권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며, 그 이유는 세 복음서 모두 같은 지역에서 회람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세 복음서 모두가 보존된 것은 복음서들 사이에 강조점 및 내용의 차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며, 성령의 영감으로 된 계시적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5)기타 복음서 자료들의 기록연대 가설

- 1) 수난전승 30년경
- 2) 마태의 로기아(Logia=Q의 가능성?) 45~50년경
- 3) 원누가복음(Q+L) 58~63년경
- 4) 마가복음(이적기사와 수난기사) 68~70년경
- 5) 마태복음 70~80년경(마가, Q, M)
- 6) 누가복음 70~80년경(마가, Q, L)
- 7) 사도행전 70~80년경
- 8) 요한복음 85-90년경

9) 그러나 사복음서의 기록연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70년 이전이다. 복음서 기록연대의 70년 이전설과 70년 이후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13절 1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70년 이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보도를 예언으로 믿고 있으며, 70년 이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보도를 '사건 후 예언'(vaticinia ex eventu)으로 믿고 있다.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은 1세기 후반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와 130년경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의 증언대로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유대주의적인 분위기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수신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마태복음은 학자들에 따라서 짧게는 45년부터 길게는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으로, 특히 말씀에 권위가 뛰어난 분으로 또 왕과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다.

1. 마태복음의 오중적 구조

마태복음의 특징은 암기에 의존했던 1세기말의 신앙인들이 복음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설교를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배열한데 있다. 다섯 개의 설교란 5-7장에 있는 산상설교, 10장에 있는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 13장에 있는 8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설교, 18장에 있는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 마지막으로 24-25장에 있는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를 말한다. 이들 설교들은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분량이다. 그리고 이들 설교들은 한결같이 심판과 보상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

이 가운데서 13장에 있는 8개의 천국비유가 마태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이들 비유들은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한다. 먼저 나오는 4개는 배 위에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4개는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13장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5-7장의 산상설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들어낸다.

13장을 중심으로 가장 나중에 나오는 24-25장의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는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천국비유와 산상설교 사이에 나오는 10장의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는 천국의 시작을, 천국비유와 종말비유 사이에 나오는 18장의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는 천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이들 다섯 개의 설교를 순서대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룬 산상설교, 천국의 시작을 다룬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다룬 천국에 관한 비유설교, 천국의 발전을 다룬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룬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비유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마태복음의 오중적 구조

서론:	탄생설화(1-2장)
제1권:	설화자료(3-4장)/예수의 세례, 시험, 제자선택 산상설교(5-7장) 종결후렴문구(7:28)/“말씀을 마치시매”
제2권:	설화자료(8-9장)/10가지 기적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10장) 종결후렴문구(11:1)/“명하시기를 마치시매”
제3권:	설화자료(11-12장)/세례요한에 관한 말씀, 고라신과 벳새다성에 대한 저주,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 정죄, 요나의 표적, 참친척과 형제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13장) 종결후렴문구(13:53)/“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제4권:	설화자료(14-17장)/오병이어, 물위를 걸으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전, 칠병이어, 신앙고백, 변화산 교회행정에 관한 설교(18장) 종결후렴문구(19:1)/“말씀을 마치시매”
제5권:	설화자료(19:2-24:31)/이혼, 자녀, 재산문제, 예루살렘입성, 천국비유. 이 부분은 말씀과 행동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보다 말씀이 더 많다. 심판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24-25장) (무화과나무, 노아 홍수, 밭 메는 자, 멧돌 가는 자,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열 처녀, 달란트, 양염소) 종결후렴문구(26:1)/“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니”
결론:	수난설화(26-28장)

한편 이들 설교들을 위한 도입으로써 1-4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 26-28장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고 있다. 8-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20개의 기적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10개가 8-9장에 실려 있다. 예수의 이 기적들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를, 19-24장은 메시아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하심으로 메시아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낸다. 11-12장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시는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14-17장은 제자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으시는 메시아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하여 기억을 돕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을 위한 교회 교과서’ 혹은 ‘교리 문답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모세오경(토라)보다 더 권위 있는 책으로 의도되었다고 본다.

설화와 설교의 교체편집 구조

설화자료(1-4장):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
제자직에 관한 설교(5-7장): 말씀을 통해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
설화자료(8-9장):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
사도직에 관한 설교(10장): 사도들의 선택과 임명
설화자료(11-12장): 유대인에게 배척 당하시는 예수
천국에 관한 설교(13장):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
설화자료(14-17장): 제자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예수
교회행정에 관한 설교(18장): 교회의 질서
설화자료(19:2-24:31):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초대
종말에 관한 설교(24-25장):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
설화(26-28장): 예수의 수난과 죽음
설교(28장 18-20절): 예수의 마지막 위탁명령

교차대칭구조

┌───14장:	예수의 탄생설화
┌──5-7장:	산상설교/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8-9장:	예수의 10가지 기적 행하심(행위의 권위)
┌──10장:	예수의 파송 설교/천국의 시작
┌11-12장:	예수의 배척 당하심/
├──13장: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천국의 본질과 성격
└14-17장:	예수의 인정받으심
└──18장:	교회 질서에 관한 설교/천국의 발전
└──19-24장:	예수의 말씀을 통한 권위
└──24-25장: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천국이 임하는 문제
└──26-28장:	수난설화, 재탄생(부활)

2. 마태복음의 특징

1) 천국 설교

마태복음은 천국 설교가 핵심을 이룬다. 13장에 실린 천국비유 8개가 마태복음의 중심축일뿐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복음이 강조되고 있고(4:23; 9:35; 24:14; 26:13), 그밖에도 요한의 설교(3:2), 예수의 설교(4:17), 제자들의 설교(10:7)에서 천국의 임박한 도래와 심판을 설교하고 있다.

이 천국 설교를 오경적 구조로 배치하고 있고, 설화는 설화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하여 암기에 의존해서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서 자료들을 기억하기 쉽게 편집하였다.

이 천국 설교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천국 설교가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하티크바)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하며,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한다.

2) 유대교적 용어와 표현

마태복음에는 유대교적 용어와 표현들이 많다. 아주 많다. 저자가 유대인이었고, 독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성서를 123번 인용(Westcott와 Hort의 주장) 했고, 그 가운데 12개 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머지는 70인역 헬라어 개역성경에서 인용하였다. 이들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이 구약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마태복음은 '천국'(Kingdom of Heavens)이란 말을 32번 사용한 반면,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라는 말은 4번밖에 쓰지 않았다(마가 14회, 누가 32회사용과 비교). 여기서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쓴 용어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출 3:14)은 모음은 없고 자음 녀자(YHWH)만 남아 있다. 학자들은 그 발음이 '야훼'(YaHWeH)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마저도 만장일치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금했고,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잊히게 되었다. 그 이름이 맛소라('전통'이란 뜻. 주후 7-10세기경에 모음 부호를 만들어 히브리어 성경에 삽입한 학자들) 사본에서 '아도나이'(주님)로 표기되었고, 이것에 근거하여 16세기경에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한편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그 이름'이란 뜻인 '하셈'(HaShem)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심판의 날에'(10:15; 11:22-24; 12:36),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8:12; 13:43; 22:13; 24:30; 24:51), '다윗의 아들'(9회 사용), '올람 하바'(Olam Ha-Ba)와 관련된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들, 바리새인들의 복장(23:5), 맹세습관(5:33-36; 23:16-22), 결혼식 상황(25:1-12), 장로들의 전통(15:1-6), 이스라엘의 역사 지식(12:3-5; 24:35),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Levirate/22:24) 등에서 마태복음의 유대교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기록 목적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인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였다는 점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과 그 소중한 의미를 밝히는 데서 발견된다.

1)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마가복음에서 광풍진압 이야기(4:35-41)를 살펴보면, 마가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4:41과 시편 107:28-29; 89:9; 65:7과 비교). 또한 마가는 이 이적설화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섬멸 당함을 선포하고 있다(4:39). 귀신을 꾸짖으시듯이 광풍을 꾸짖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예수님의 출현이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종말론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태의 광풍진압 이야기(8:18-27)를 살펴보면, 마태는 8-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행하심을 수집하고 있는데, 네 번째인 이 광풍진압 이야기를 제자직에 관한 교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기적 앞에 '제자 됨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다(8:18-22).

이 광풍설화에서 제자직에 수반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광풍의 바다 한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는 것과 같다는 교훈일 것이다.

마태는 이 이적설화를 통해서,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포기과 결핍을 각오해야 한다고 가르치며(8:18-20),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있어서 택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으며(8:21-22), 셋째 예수님의 제자 됨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위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8:23-27). 마태와 마가가 동일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위가 말씀보다 앞서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특색이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마태는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강조점을 두었고, 마가는 예수의 행동의 권위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까지, 마태복음 첫 장서부터 끝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장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임을 입증하였고, 2장에서 베들레헴에 출현한 별은 다윗의 고향에 나타난 다윗의 별을 말하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과 동방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3장과 17장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또 병자들과 민중의 외침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총독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통해서조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셨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고 구차한 마구간에서 나셨다.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수의 일을 배우며 가난한 시골동네에서 자랐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9번이나 언급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백마 탄 정복자로써가 아니라, 나귀새끼를 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한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 손에 홀을 쥐고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민중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힘겨운 부역을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에 갈대를 쥐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것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독설로 들린 반면, 그들로부터 짓밟히며 살아가던 민중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렸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세오경이나 그 율법을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분, 특히 말씀에 권위 있는 분으로 설명하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11:11), "성전보다"(12:6), "요나보다"(12:41), "솔로몬보다"(12:42), 심지어 다윗보다 더 큰 분(22:45)으로 소개하였다.

또 이 왕의 행동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권세 있는 능력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으로 나타난 반면, 질병에 짓눌려 신음하던 민중에게는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환호성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고(마 12:22),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를 고쳐 주셨다(마 15:30, 21:14).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사랑 때문이었다(마 14:14).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수천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증명한 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가슴에서 나온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정치·경제·군사통수권을 보장하는 옥좌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죄 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해골의 언덕 끌고다로 향하게 하였다. 이 왕이 추구한 삶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이 가장 숭고한 죽음인지를 가장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설교]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마 4:1-11)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세에 희망을 걸게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주기를 바라거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역사·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고 오랫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유대민족과 우리민족에게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유배 이후 메시아사상을 발전시켜왔고, 많은 수의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었던 것이고, 우리민족은 삼국시대 이후 미륵사상을 발전시켜왔고, 역시 많은 수의 자칭 미륵들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열심당원 발 코크바이고, 태봉의 왕 궁예입니다. 발 코크바는 '별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뜻으로 지구상에 처음 교회가 설립된 지 102년만인 주후 132-13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유대전쟁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이 존경했던 랍비 아퀴바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혁명가였습니다. 이들 자칭 메시아 또는 자칭 미륵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정치·군사적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혁명들은 백이면 백 다 민중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채 끝장나곤 했습니다. 발 코크바나 궁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일어난 혁명들, 예를 들어, 청나라 사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1850-1864), 레닌의 러시아혁명(1917), 우간다의 이디 아민, 이라크의 후세인, 박정희의 군사혁명까지 그들 민족에게 시련을 안기지 않았던 예는 없었습니다.

2천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600년 넘게 제국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피폐할 때로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유대지방이 로마총독의 관할아래 있던 때여서 유대민족에게 왕이 없었고 또 왕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칭호를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 또 바벨론유배 이후 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자'로 예언했던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들 칭호를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반란자로 내몰릴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칭호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 경로란 민중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운명도 다른 여타의 자칭 메시아나 자칭 미륵들처럼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혁명군의 선봉장이 되어야 했고, 민중에게 큰 아픔을 남긴 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여타의 메시아나 미륵들과는 다른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였음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시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과의 차이를 크게 만든 것 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까지, 마태복음 첫 장서부터 끝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장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임을 입증하였고, 2장에서 베들레헴에 출현한 별은 다윗의 고향에 나타난 다윗의 별을 말하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과 동방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과 17장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또 병자들과 민중의 외침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총독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통해서조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고 구차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왕

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수의 일을 배우며 가난한 시골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9번이나 언급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백마 탄 왕으로써가 아니라, 나귀새끼를 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 손에 홀을 쥐고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민중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힘겨운 부역을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에 갈대를 쥐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것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독설로 들린 반면, 그들로부터 짓밟히며 살아가던 민중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렸습니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세오경이나 그 율법을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분, 특히 말씀에 권위 있는 분으로 설명하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11:11), "성전보다"(12:6), "요나보다"(12:41), "솔로몬보다"(12:42), 심지어 다윗보다 더 큰 분(22:45)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이 왕의 행동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권세 있는 능력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으로 나타난 반면, 질병에 짓눌려 신음하던 민중에게는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환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고(마 12:22), 절뚝발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를 고쳐 주셨습니다(마 15:30, 21:14). 예수님께서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마 14:14). 또 예수님께서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수천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증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가슴에서 나온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정치·경제·군사통수권을 보장하는 옥좌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죄 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해골의 언덕 끌고다
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 왕이 추구한 삶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이 가장 숭고한 죽음인지를 가장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과 달랐던 점은 마태복음 4장
1-11절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
지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네가 만일 하
나님의 아들이어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시작하기에 앞
서 40일간 금식기도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받은 힐문이며 또 메시아
직을 마감하는 십자가상에서 사람들로 부터 받은 힐문이기도 합니다
(마 27:4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하는 이 말은 민중을 구
하겠다고 나선 모든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에게 던져진 유혹의 소리
라고 봅니다. 이 말에 함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칭 메시아나 미
륵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양 또는 미륵인양 또
는 신의 아들인양 주재님께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함
정에 빠진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내세운 양가죽을 쓴 ‘사
람의 일’을 일삼는 늑대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째 자만심을
부추기는 소리요, 둘째 ‘하나님의 일’과 비교되는 ‘세상의 일’ 또는
‘사람의 일’을 부추기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
님은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
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강하
게 뿌리치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 22-23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제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되
어 달라는 베드로의 강한 만류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메시아나 미륵처럼 거창한 사명수행을 들고 나온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괴롭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순한 생각과 목적으로 무모한 일에 뛰어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내세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어야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모하게 뛰어들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해서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세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였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 . .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는 사람들로 부터 칭송과 찬양을 받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미륵임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좋은 결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로 인류의 구세주로 칭송을 받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한 자칭 미륵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도교를 창도한 최제우가 이 사람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제선(濟宣)이었는데, 1859년에 이름을 제우(濟愚)로 바꿨습니다. 제우(濟愚)는 ‘예

수'와 뜻이 같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최제우는 젊어서 오랜 방랑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에 알게 된 천주학 곧 기독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제우는 32세 때인 1855년에 49일간의 기도에 들어갔고, 37세 때인 1860년에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천사문답(天師問答) 곧 '하늘스승문답'이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시험이란 것이 있는 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울님이 가라사대, “네가 지금 그릇된 세상을 건지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살리고자 하니 그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 뜻을 이루고자하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 너에게 백의제상(白衣宰相)를 주어 금력과 권력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하리라.” 최제우는 대답하기를, “부귀는 본래 제 소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세로서 망하게 되었거늘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지라 하시니 이것은 사나운 것을 바꾸는 격이 될 것이라, 저의 뜻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울님이 가라사대, “부귀가 네 소원이 아니라면 권모술수로서 세상을 건지라.” 최제우는 대답하기를, “이 세상은 권모와 간교로서 망하였는데 어찌 다시 적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 일시의 평안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한울님은 다시 “그렇다면 나에게 조화의 술법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세상을 건지라”고 하자 최제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이치에 어기는 일이라. 만물이 다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이치로 자라고 사는데 어찌 이치에 어기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이것도 소원이 아닙니다.” 이 일 후로 최제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울님이 또한 그릇된 도로써 가르치시니 내 이제부터는 다시 한울님의 명교를 듣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11일간의 단식에 들어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경지, 곧 “내 마음이 곧 그대의 마음”이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제우는 이 도를 깨달은 지 5년 만인 1864년 고종 원년에 체포되어 “사술로써 병인을 고치고 주문으로써 국가민족을 기만하며, 검가(劍歌)로써 국정을 모반한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받았습다.

예수님을 모방했으면서도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했던 최제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사람이 곧 한울님이요(人乃天),

사람과 한울님이 하나(同歸一體)라고 주장하였고, 검무(劍舞)를 추고 검가(劍歌)를 부름으로써 국정을 모반한다는 오해를 받아 참형을 받았던 자칭 미륵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었던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이 가장 숭고한 죽음인지를 가장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40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마가복음

1. 마가복음의 구조

마가복음은 130년경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증언대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특히 행동에 권위가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1-8장까지이고, 후반부는 9-16장까지이다.

마가복음의 전후반부

전 반 부(1-8장)	후 반 부(9-16장)
서론	본론
기적설화	수난설화
예수=초인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수난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고백 예수=그리스도	백부장의 신앙고백 예수=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갈릴리 사역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 제자 선택장소, 활동본거지, 성공의 장소, 부활 후 첫 출현장소)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은 예수의 배척, 심문, 고난, 죽음의 장소)
예수의 생애와 예배=말씀의 예배	예수의 생애와 예배=성만찬 예배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활동하신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며, 제자들을 선택한 장소이며, 성공한 장소이며, 부활 후에 처음 출현한 장소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말씀전파와 병고침으로 나타난다.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활동하신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이들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심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

시고 죽음을 당하신 곳이다.

전반부 1-8장까지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개가 8장이전에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에 실린 18개의 기적은 마가복음 전체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마가는 이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그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각종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부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후반부 9-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에는 배척과 배신과 고문과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평화의 왕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뿐 아니라,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써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조차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으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 마가는 예수님의 수난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승리를 보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백부장의 신앙고백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 비교

전반부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1-8장): “보다 강한 자”에 대한 요한의 설교(1:7-8) ⇒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 음성(1:11) ⇒ 예수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기적 설화 ⇒ 제자들의 무지(7:18-8:21) ⇒ 벧세다 장남치유(8:22-26) ⇒ 베드로의 신앙고백(“주는 그리스도시요”/8:27-30)

후반부 주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9-16장): “많은 고난”에 대한 예고(8:31) ⇒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 음성(9:7) ⇒ 거듭된 수난예고(9:31, 10:33-34) ⇒ 제자들의 무지(9:32; 10:35-45) ⇒ 장님 바디매오의 치료(10:45-51) ⇒ 백부장의 신앙고백(“하나님의 아들”/15:39)

종합

마태복음 16:16/“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 마가복음의 특징

1)기적의 복음

마가복음의 24%가 기적이야기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적이야기를 수집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적들은 광풍진압, 오병이어와 같이 자연기적, 귀신축출, 그리고 치유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재해로부터 해방하시며, 정신질환자 및 신체장애자를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1:1;15:39).

마가복음에는 18개(160절)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20개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지만, 단위별로 볼 때, 소개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짧고, 복음서 전체의 크기로 볼 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월등히 짧다는 점에서 마가복음에 기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복음서의 비율보다 높다 하겠다. 기적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전체의 24%, 누가복음이 12%, 마태복음이 4%를 차지하고 있다.

마가의 기적 편집자료

① **두 바다 기적**

┌ 풍랑진압 ⇒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 ⇒ 오천 명을 먹이심

| (4:35-41) (5:21-43) (6:35-44)

└ 물위를 걸으심 ⇒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 사천 명을 먹이심

(6:45-51) (7:24-30) (8:1-10)

② **두 급식 기적**

┌오천 명을 먹이심(6:35-44)⇒바리새인과의 논쟁(7:1-23)⇒제자들의 우둔함
| (7:18)⇒귀먹은 병어리 치유(7:31-37)⇒베드로의 신앙고백(8:29)
└사천 명을 먹이심(8:1-10)⇒바리새인과의 논쟁(8:11-13)⇒제자들의 우둔함
(8:17절 이하)⇒벧새다 장님치료(8:22-26)⇒베드로의 신앙고백(8:29)

③ **설명**

두개의 바다기적, 두개의 귀신축출기적, 두개의 급식기적, 두개의 신체장애자 치료가 거의 평행을 이룬다. 대표적인 주요 연결 단어는 배와 떡이다(교회와 성만찬).

2) 수난의 복음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수난설화로 되어 있다. 공관복음서 문제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신약성서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야기가 수난설화이다. 이 수난설화는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처럼 달리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이야기로 썬 주후 30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해져 오던 기독교의 핵심메시지이다. 이것을 수집해서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마가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대로 마가복음은 전반부(1-8장)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서론부분이고, 후반부(8-16장)에 나오는 이 수난이야기가 본론에 해당된다. 학자들은 전반부를 지나치게 길다는 뜻으로 ‘확대된 서론’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후반부의 수난이야기가 전반부의 기적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난이야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시몬 베드로의 배반이야기’ (14:54,66-72)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15:20-21)와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1) 시몬 베드로의 배반이야기’ (14:54,66-72)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네로의 박해시대였다는 점에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글이라는 주장이 있다.

마가는 베드로의 배반과 예수님의 심문을 대조 비교함으로써 용감히 자신을 고백하는 예수님과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이층 홀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베드로는 집안 뜰에서 계집종에게 각각 심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가의 목적은 배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초대교회를 경고하고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2)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15:20-21)

십자가형을 언도 받은 당사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로마시대의 관례였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직에 대한 일종의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마가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문구는 오직 두 번 나오는데, 한번은 첫 번째 수난예고를 하시고 참된 제자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이고(8:34), 또 한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서이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마가의 수난의 복음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디 깨닫고 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수난시대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의 위협에 직면한 당대의 교인들을 경고하고, 무지와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마가는 자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서슴지 않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의 수난예고와 제자들의 무지 그리고 제자직에 관한 설교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 ┌① 예수의 제 1 차 수난 예고(8:31)
- | ② 제자들의 무지(8:33/베드로가 예수의 수난을 말리고 그 때문
- [1]└ 에 사단이란 소릴 듣는다)
-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8:34-38/“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 └ 자기를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 ┌① 예수의 제 2 차 수난 예고(9:31)
- | ② 제자들의 무지(9:33-34/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누가 더 높
- [2]└ 으냐고 서로 다투었다)
-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9:35-37/“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 └ 맨 마지막으로 되어야 한다)
- ┌① 예수의 제 3 차 수난 예고(10:33-34)
- | ② 제자들의 무지(10:35-40/야고보와 요한이 하늘 영광의 자리
- [3]└ 를 요구한다)
-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10:42-45/“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 └ 되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 .”)

3. 마가복음의 기록목적

1)기적 복음의 기록목적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에는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 기적 그리고 두 개의 장애자 치유가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두 개의 바다 기적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4:35-41)는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6:35-44)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죽었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5:21-43)을 받는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위를 걸으셨던 이야기(6:45-51)또한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8:1-10)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 그 사이에서 귀신들렸던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7:24-30)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풍랑과 같은 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간들을 고칠 뿐 아니라, 빈 들에 모인 수천 명의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일시에 해결하고 계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육체적 필요만을 채워

주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뱃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민중의 빵 문제를 해결했던 두 개의 급식기적들은 귀먹고 어눌했던 병어리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듣고 말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빵 문제를 뛰어넘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귀가 뚫리고, 눈이 뜨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귀가 뚫리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한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개의 장애자 치유기적, 즉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와 뱃새다 장님의 치유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우둔함이 각각 소개되고 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둔함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은 그들이 율법 또는 바리새인 법과 같은 그들의 전통에 매어 본질을 상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우둔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제자들의 일부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은 데서 발단이 되었고, 제자들의 우둔함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7:15-16)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이었던 것이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에 매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책망하셨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둔함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뱃새다 장님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서 나타난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는 모세의 말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고, 그 선지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민중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점에서 진정 우둔한 자들이었다. 이에 예수님은 마음 속 깊이 탄식하셨고,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8:15)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였던 것이다. 제자들 또한 표적을 보고서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요 6:26)고 했다. 이들의 우둔함이 빵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고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민중을 먹이신 것은 오로지 자신이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특히 마가복음 8장 14-38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마가복음 8장 14-38절은 대칭구조를 이루는 두 개씩의 이야기와 제자직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14-21절을 보면, 빵이 없음을 의논하는 제자들의 우둔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우둔함과 예수의 책망이 나온다. 이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2-26절에 믿음이 없어 치유에 다소 시간이 걸린 뱃새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과 27-3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또 다른 하나의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34-38절에 제자직에 관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온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4절과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경고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좀더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치 못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또 기억력이 나쁜 자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뱃새다의 소경이 서서히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한 죄수에 불과하겠지만,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이 보고 듣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구세주란 사실을 깨닫고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었다.

2) 수난 복음의 기록목적

앞서 수난의 복음에서 설명한대로 ‘시몬 베드로의 배반이야기’(14:54,66-72)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15:20-21)와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네로의 박해시대였다는 점에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초대교회를 경고하고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박해시대의 성도들에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마가복음에서뿐 아니라, 복음서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문구는 매우 중요한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모범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을 고통 중에 오르셨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디 깨닫고 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수난시대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의 위협에 직면한 당대의 교인들을 경고하고, 무지와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마가는 자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서슴지 않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전반부 기적의 복음과 후반부 수난의 복음 모두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다는 점이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1:12-13),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1:24), 귀신을 꾸짖으시고(1:25; 9:25), 축출하심(1:34,39, 43; 3:22; 5:40; 6:13),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지거나”(3:11),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5:6). 이는 예수님이 귀신을 결박할 능력

을 가지신 분이시며(3:27),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5:41-42),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그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만드시는 분이다.

전반부 기적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귀신이든지, 자연이든지(4:39), 적대자들이든지,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으며, “즉각적”(εὐθὺς/1:42; 2:12; 5:29,42; 7:35; 10:52/41회)으로 순종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간의 투쟁의 측면에서 묘사된 것이다.

수난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과 승리자로서 입성을 하시고(11:1-11),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며(14:32-42),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ἐξπνέω) 모습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셨다(15:37-39), 최종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16:5).

이것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듯이 그의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인공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오, 승리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막 8:14-25)

마태가 예수님을 권세 있는 말씀에 많이 하신 분으로 소개한 반면에 마가는 권세 있는 행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야기가 각각 20개씩 있고, 마가복음에 18개가 있지만, 이 18개가 마가복음 전체분량의 사분의 일

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량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처음으로 소개할 필요를 느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태의 활동무대가 주로 헬라문화권이었다면, 마가의 활동무대는 라틴 문화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문화권의 특징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 논쟁이 많고 말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라틴문화권의 특징은 예술과 문화활동이 많은 곳이어서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헬라권의 유대인기독교회를 섬겼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크게 관심하는 말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으로 소개하였고, 라틴권의 이방인기독교회를 섬겼던 마가는 로마인들이 크게 관심하는 행동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에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복음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8개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만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녕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팔을 펴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활동무대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삶이 터전인 갈릴리지역이었습니다.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제자들을 선택했던 장소이며, 비록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성공을 거두게 해준 장소이며,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기적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는 민중을 불쌍히 여긴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활동에서 성공한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민중을 불쌍히 여기신데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중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민중의 배고픔에 함께 배고파하시고, 민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민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신 데에 성공의 비결이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 눈높이를 맞출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행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며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결코 보기에는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게 되면 큰 교훈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의 무대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치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갈릴리에서는 소외된 민중을 대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며 폭풍을 잔잔케 하시며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마치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맥없이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당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좌절과 절망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전반부 기적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후반부 수난이야기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9-16장까지의 후반부 수난이야기를 마가복음의 본론이라고 부르고, 전반부 1-8장까지의 기적이야기를 마가복음의 긴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복음의 핵심이 기적이야기에 있지 않고 수난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릴리지역 활동에서 나타난 기적이야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지역 활동에서 나타난 수난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수난이야기를 본론이라 부르고 기적이야기를 서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서 전반부 기적이야

기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의 예배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수난이야기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성만찬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지 않고 성만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예배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잘못된 가톨릭미사예배를 고친다는 것이 그만 예배에서 설교를 복구하는 대신에 성만찬 예배를 제한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예배가 빠진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반쪽예배 곧 드리다만 예배란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절망의 배후에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뿐 아니라, 겐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으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는 40여시간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사망권세 이기셨고, 승천하여 하나님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 결국 영광을 쟁취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난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그분의 수난을 통해서 비슷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현재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궁극적인 승리 곧 최후의 승리를 보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반부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곧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벳새다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뜨인 자가 되고 귀가 열

린 자가 되고 혀가 풀린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난의 정점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뜨인 자가 되고 귀가 열린 자가 되고 혀가 풀린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먹을 빵이 없는 절박한 순간에도 세상의 일에 억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약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의 가루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표적과 같은 하늘로써 내린 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늘로써 내린 기적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식의 희롱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삼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말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어떤 표적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4-38절을 보면, 대칭구조를 이루는 두 개씩의 이야기와 제자적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14-21절을 보면, 빵이 없음을 의논하는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무지와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26절에 믿음이 없어 치유에 다소 시간이 걸린 벳새다소 경이 눈을 뜨는 장면과 27-30절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또 다른 하

나의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34-38절에 제자직에 관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라고 한 24절과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좀더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빵의 없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치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또 기억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하더라도 벳새다소경이 서서히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형수에 불과하지만,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구세주란 사실이며, 그것을 깨닫고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빵은 먹고도 죽는 빵이요(요 6:58),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먹고 죽지 않는 하늘로써 내려온 산 빵이라고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먹고 살 빵이 없음만을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닌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믿음이 없어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아닌지, 믿음이 없어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자가 아닌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지 반성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1. 누가복음의 구조

누가복음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가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이방인(헬라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누가는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신 분, 기도하시는 분, 배척을 받으셨으나 영광의 승리를 획득하신 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여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1-3장은 서론에 해당되고, 대략 4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0장에서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 나머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내용이다.

누가복음은 여행, 성령, 기도, 배척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에 담고 있다. 누가복음 전체 가운데 42퍼센트를 차지하는 많은 분량이다.

둘째,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17번, 마가복음에 23번, 요한복음에 21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나온다. 사도행전의 69회까지 합하면 무려 107회나 된다.

셋째, 누가복음은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도에 관한 단어가 신약성서 전체에서 90회 사용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절반이 넘는 47회나 사용되고 있다.

넷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과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신 일을 통해서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신앙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 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누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2. 사도행전의 구조

사도행전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주후 63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한 초대교회 발전사이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적고 있고,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바울이 중심이 되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적고 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여섯 개의 요약 문구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둘째, 9장 31절의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셋째, 1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넷째, 16장 5절의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다섯째, 19장 2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섯째, 28장 31절의 말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여섯 개의 문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여행, 성령, 기도, 배척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도행전은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네 차례의 선교 여행과 특히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유럽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둘째,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한 성령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누가는 교회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회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약속 받고 인침 받고 보증을 받고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설명한다.

셋째,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도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 세 번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넷째,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배척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누가문서의 특징(통일성)

누가문서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하며, 이 두 책을 두 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단행본의 제1권과 제2권으로 보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리고 누가문서의 통일성이란 두 문서에서 나타난 구조적 유사성을 말한다.

1) 배척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문서는 배척의 주제로 시작되고 또한 배척으로 끝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4:16-30), 수난 예고(눅 9:44-45),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9:52), 그리고 므나 비유를(눅 19:11-27) 통해서 배척을 암시

하고 있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적인 활동도 배척으로 시작하고 있다(행 2:14-40).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 7:59-8:1), 야고보는 순교 당했고(행 12:1-5), 제자들과 바울은 자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도 맞았다(행 5:18; 12:5; 14:19; 16:22-24; 23:35). 그러나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승리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다.

2) 여행(순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움직이는 바울의 여정을 담고 있다(13-28장).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누가복음 전체의 42%(10장)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는 한 장, 마태복음에서는 두 장만이 여행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예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죽음과 박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혹은 박해받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겨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3) 성령

누가문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활동,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누가문서에 사용된 '성령'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영'(Spirit)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9번, 요한복음에 17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27번, 사도행전에는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4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

복음에는 11번, 사도행전에는 41번이 쓰이고 있다.

누가문서에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님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도들(교회)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완료된 구원사역(finished work)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救援史)의 연속(unfinished work)이 설명되고 있다.

4) 기도

누가문서는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겐세마네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에서 행하였다(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맞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님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테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님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배척, 여행, 성령 충만, 기도, 이 네 가지 주제들은 누가문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할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혹은 다른 많은 선배 신앙인들처럼, 오직 성령 충만함과 기도만이 순례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다.

5) 구원사의 연속성

누가만이 세례요한의 탄생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을 사무엘상 1장의 사무엘의 유형을 따라서 소개한다. 누가는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야기를 나란히 편집하여 소개한다. 목적은 구약과 신약,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History of Salvation)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누가는 스테반, 베드로, 바울 등을 예수님의 유형을 따라서 소개한다. 목적은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의 연속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된 사역으로써 누가복음에 기록하였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속성, 즉 주의 종들을 통한 구원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구약에서 신약에로, 예수님에게서 초대교회로, 히브리과 유대인에서 헬라과 유대인에로,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에로, 그리고 과거에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누가의 '구원사(History of Salvation)의 연속성'이라고 부른다.

6) 누가의 역사관(종말론)

누가문서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누가는 교회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로 이해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중생의 거듭남(칭의)에로 인도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둘째, 교회가 기대했던 임박한 종말의 지연을 성령님의 활동을 통한 종말의 역사화로 설명한다. 성령님은 종말(재림)과 현재 사이에 교회시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임박한 종말신앙을 자연스럽게 현재적 종말신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임박한 종말신앙이란 현세를 비판하고 내세만을 기대하는 유대주의 묵시문학적 말세신앙을 말하며, 현재적 종말신앙이란 재림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 인침, 보증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는 선취(先取/anticipation)를 말한다. 따라서 누가가 말하는 현재(영혼)구원은 미래구원에 대한 성령님의 약속, 인침, 보증, 선취를 뜻한다.

4. 누가문서의 기록목적

누가문서의 주된 기록목적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의 정당성과 로마당국을 향한 기독교의 합법성을 변증하고, 배척가운데서도 기도와 성령충만함으로 천로역정(天路歷程)을 마치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구약예언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 행함과 놀람과 표적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1-12장)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

함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고, 사도행전 후반부(13-28장)에서는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선례들을 밝히고, 또 기독교가 유대교 안의 한 종파에 지나지 않음을 밝힘으로서 그 당시 유대교가 누리고 있던 공인종교의 혜택을 기독교도 받아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설교]나그네 민중의 친구 사람의 아들(눅 9:51-62)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에 권세가 크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행동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였다면,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성도들의 모범자로 소개하려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에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의 관심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각기 달랐어도 그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신약성서들 가운데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주후 58년부터 60년까지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유대지방에 거주하면서 착실하게 예수님과 초대교회설립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헬라시대의 전기방식으로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록목적이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기록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나그네 민중의 친구 사람들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을 말하는데 누가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승천하

실 기약"이란 말 대신에 "영광을 얻을 때"(요 12:23)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과 승천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영적부활) 후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40이란 고난의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승천 또는 영광을 얻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후에 사막에서 40년을 자기 집 없이 나그네 천막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복지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이란 숫자, 이 숫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후에 사막에서 40년을 자기 집 없이 나그네 천막생활을 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승천 또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한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 곧 사실적 표현이지만,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의미 곧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다짐한 신앙생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부분이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지역에서의 활동,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네길,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최후를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그네길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나그네길을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전체 24장 가운데 42퍼센트를 차지하는 무려 10장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그네길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나그네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5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시는 나그넷길과 반복해서 배척당하시는 일들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몇 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언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인 4장에서 갈릴리지역을 대표하는 고향 나사렛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실 뿐 아니라 살해위협까지 받고 계시고, 갈릴리지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점인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여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도부터도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마을 여리고에서의 일을 소개하는 19장에서 열 므나비유를 통해서 배척당하여 죽게 되실 것을 암시하셨고, 예루살렘입성 직후부터는 예수님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음모가 진행되었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종교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중과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로마제국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행정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북쪽이 갈릴리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사해바다를 끼고 있고 메마른 남쪽이 유대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북쪽 갈릴리지방에 속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가운데 지방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남쪽 유대지방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부터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배척의 정도나 강도를 말해 주는 것으로써 땅도 예수님을 버렸고 하늘도 버렸기 때문에,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의지할 곳 없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지해서 허공에 매달린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도부터 배척을 당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비참하게 죽는 것에서 끝장을 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승천과 하늘의 영광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영광과 찬양을 받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다름 아닌 복음서 기록 당시에 성도들이 처했던 어려운 형편들을 말해주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순례를 대변하는 것이란 점을 이어지는 9장 57-62절의 제자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의 “길 가실 때”란 말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수도 곧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순탄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인 것은 58절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짐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2절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복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은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승천이요 그 최후는 영광이란 점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간 후에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마라톤대회에 나선 주자처럼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상을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로역정 곧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쟁기 잡은 손을 중도에서 놓아버리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을 쓴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도 ‘성령’과 ‘성령충만,’ ‘기도’와 ‘기도하다’란 단어를 월등히 많이 사용한 저자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17번, 마가복음에 23번, 요한복음

에 21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쓰인 것까지 합하면 무려 69번이나 됩니다. 기도에 관한 단어는 신약성서 전체에서 90번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절반이 넘는 4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성령충만함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기도생활만이 성령충만할 수 있는 길이고 성령충만해야만 중도에서 포기치 않고 천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그넷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생활과 성령충만함을 성도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체험을 하셨으며,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에 기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체험들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에서 광채가 빛났으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율법과 예언에 관한 신령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눅 9:28-29).

둘째,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비유에서 ‘강청(強請)의 기도’를 강조하셨고, 18장 1절부터 8절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셨고, 18장 9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겸손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강청의 기도를 강조하실 때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직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기도로 준비하셨고(4:1),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피하셔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니다(5:16). 제자선택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하셨고(6:12),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앞두고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습니다(9:18).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11:1).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습니다(22:32).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적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배척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강력한 도전을 세 차례에나 받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십일 금식기도 때문이었습니다(눅 4:1-13).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도 기도였습니다(눅 9:18). 삶에 대한 끈질긴 애착을 끊을 수 있었던 힘도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행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눅 22:41-44). 십자가에서조차 고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쪽보다는 오히려 인자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칭호는 제 삼자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호칭하실 때 쓰신 표현이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성령충만한 분이셨을 뿐 아니라, 민중의 친구로서 짧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

명을 받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네였지만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난한 자와 여인,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자나 여인, 세리나 죄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4개의 선교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록 신분은 천했지만, 강도만나 죽어가던 자를 살린 강도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시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또는 친구로 맞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기도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나그네들(행 20:16-24,21:1-14)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기독교의 기원과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사를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이 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던 당대를 교회시대로 이해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로부터도 이단시 취급될 뿐 아니라, 탄압을 받던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

를 위한 시대 곧 교회시대로 당대를 조망(眺望)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내다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10여 차례의 큰 박해를 당하고도 300여년 만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로마제국을 기독교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18세기 영국인 에드워드 깁본(Edward Gibbon)은 『로마제국의 몰락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776-88.)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일신교 신앙을 단호하게 지켜냈다는 점,
 둘째, 신자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보장했다는 점,
 셋째,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
 넷째, 신자들이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
 다섯째, 그리스도인공동체들이 일치단결해서 로마제국 내에 독립된 사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65년에 역시 영국인 에릭 도즈(Eric R. Dodds)가 『불안의 시대 안에서의 이교도와 기독교도』(Pagan and Christian in an Age of Anx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란 책을 냈는데요, 도즈 교수는 로마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네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배타성이 불안의 시대를 살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되었다는 점,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점,

넷째, 일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의식주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들 두 저명한 역사가들이 지적한 아홉 가지의 원인들이 모두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공을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대의 신앙인들은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박해까지 받아 늘 목숨이 위태

롭던 상황이었는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고, 성령충만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짧은 기간 안에 전파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시대가 성령님이 역사(役事)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산소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뤄주시고, 또한 이 구원을 보증하시며 인(印)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편입시켜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굴절의 빔처럼 우리 가운데 따스하게 내재하시며, 의사처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고, 변호사처럼 억울한 일을 도우시며, 상담자처럼 연약함을 도우시고, 교사처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들은 중생의 기쁨을 얻게 되며, 당장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앞당겨 미리 맛보고 체험하게 되며, 성화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막연히 주의 재림을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능동적으로 하나님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존재하신 세상으로 바꿔감으로써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시대 또는 성령시대를 살면서 거기에 걸맞게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길인데, 이 나그네길 곳곳에는 많은 배척과 환란이 숨어 기다리고 있어서 한 순간도 마음을 놓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인데요,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원들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스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고린도에 내려가 3개월간 겨울을 난 다음에 그곳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길에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

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와 사도행전 20장 16절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바울과 그의 선교팀원들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나그넷길이 배척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듯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나그넷길도 역시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다는 점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유월절을 택하지 않고 오순절을 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바다길이 위험한 겨울동안 고린도에서 지내고, 해동되자마자 유럽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져갈 선교기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3-4월경에 닿는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직 율법시대에 활동하셨지만, 바울은 교회시대에 활동하였으므로 교회창립기념의 의미가 있는 5-6월경에 닿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24절에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당부한 말씀들 가운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나그넷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성령님이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그

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험한 가시밭길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길을 달려갈 길로, 목숨을 걸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감해야 할 길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류하는 성도들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21장 4절을 보면, 두로 지방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고, 또 10-14절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24절 이하를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강하게 만류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바울에게도 전개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피하고 싶은 충동이 없지 않았지만, 기도와 성령님에 의지해서 나그넷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결국 험한 꼴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그 길을 피해가라는 지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지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의 일을 생각하라는 지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처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21장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령해서 미래의 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들과 공회와 헤롯 안디바와 두 차례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대제사장들과 공회와 헤롯 아그립바 2세와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동일한 횃수만큼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방면하려고 했던 것처럼,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립바 2세가 역시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하게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탄압과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천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그넷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오로지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 세 번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 속에 머물게 했을 뿐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얻을 수도 있고, 기계를 움직일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와 같아서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해도 아무나 그 전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위치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전기스위치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스위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기가 아무리 흔하다 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항상 우리 주변을 덮고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엄습해 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 생활에 붙어 닥친 혹독한 추위를 막을 수 없고, 기계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힘차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 때나마 실망과 좌절과 비통함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삼일 만에 찾아온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부터는 기도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면서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그넷길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55년에서 90년 사이에 소아시아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이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은 예수를 만세 전부터 계신 분, 혹은 계시자로 소개함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강조함은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예수의 인성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마태, 마가, 누가의 마지막 수난 주간을 빼고는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는 동안, 요한은 예수의 초기 유대지방 사역과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예루살렘 방문을 보도하고 있다. 요한은 또 예수의 개인전도의 사례들을 마태, 마가, 누가보다 월등히 많이 보도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써 로고스 찬양과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2-12장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곱 개의 기적이 모세가 행한 재앙과 유형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일곱 개만을 선별해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의 모세의 재앙과 유형적으로 비교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물을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모세가 장자를 죽게 한 재앙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초래한 부정적인 것인데 반해서, 예수의 기적은 축복을 가져온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와 은총의 복음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후반부 13-21장은 강론과 부활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도 기적에 관련된 설교들이 4장, 5장, 6장, 9장, 11장에 다섯 개나 실려

있지만, 이들 설교들이 대중적인 담화 설교인데 반해서, 후반부에 실린 예수의 긴 고별설교와 기도는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또는 수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의 하나가 사랑이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에 관한 단어가 5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서, 마태의 14번, 마가의 7번, 누가의 16번과 비교가 된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노만 페린(Norman Perrin)의 5부분 구조

서론 로고스론과 세례요한(1:1-51)
 전반: 1) 표적(sign)의 책(2:1-12:50)--7가지 이적
 후반: 2) 고별설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13:1-17:26)
 3) 수난설화(18:1-20:30)
 부록: 갈릴리와 부활현현(21:1-25)

2. 요한복음의 특징

1) 사랑의 계명

사랑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요한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폐쇄된 집단에 국한된 열등한 사랑을 주장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즉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같은 큰 계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서로 사랑 혹은 형제 사랑 또는 친구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일
agapao	9	6	14	44	46
phileo	5	1	2	13	0
합계	14	7	16	57	46

2) 반 영지주의

요한복음은 반 영지주의적인 복음서이다. 요한복음은 성육신(1:14;

6:51-63)과 예수님의 죽음(19:17, 28, 34; 5:6; 11:35),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성(20:20, 27; 21:14)을 강조하면서 가현설을 공박하고 예수님의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 저자들이 보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일곱 마디이다. 마태와 마가는 각각 예수님의 절망적인 외침 한 마디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각각 세 마디 말씀들을 보도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며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당시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물리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말씀들을 수집하여 보도하였다.

마태와 마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막 15:34).

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요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내가 목마르다”(요 19:28).

“다 이루었다”(요 19:30; cf. 롬 8:4,10:4).

3) 요한의 종말론

요한의 종말론은 현재적 혹은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트만은 말한다. 요한은 심판의 현재적 발생을 강조(3:18-19; 9:39; 16:11; 12:31) 하면서,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분리를 말하며, 미래적 사건이 아닌 현재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5:24-25; 11:25-26) 하면서 마지막 날의 부활보다는 ‘지금 여기서’ 예

수님을 믿는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강조하였다. 또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5:24; 3:36; 6:47; 17:3; 요일 5:13) 하면서 장차 올 세대에서 맛보게 될 미래적 은사로 생각되었던 영생이 요한에게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미래적 종말론을 말하는 본문을 많이 갖고 있다(5:28; 6:39-40, 54; 12:48; 14:1-4; 17:24). 따라서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뿐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을 함께 말해 주고 있다.

4) 요한복음의 모세 유형론

모세와 출애굽의 주제를 요한복음의 주요한 주제로, 요한복음의 배경을 구약에서 보려는 견해이다. 이것들은 모세 유형론, 출애굽 유형론, 신명기 유형론, 유월절 유형론으로 나누어진다.

(1) 모세 유형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1:17)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3:14)고 밝힘으로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이야기의 반영이며, 17장의 고별설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최후 설교와 기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2) 출애굽 유형론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배척에 관한 구절들(출 2:11, 14; 요 1:11), 뱀의 표적에 관한 구절들(출 4:4-5; 요3:14-15), 표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타난 사실(출 4:30; 요 2:11) 등이 유형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또한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 의도적으로 일련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문서가 다 같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출 4:8, 9; 요 2:11; 4:54). 또한 두 책이 다 같이 불신앙이나 완악한 마음(출 14:8; 요 12:37-40), 그리고 믿음(출 14:31, cf. 요 20:30이하)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출애굽기 32-33장과 요한복음 17장은 둘 다 모세와 예수님의 중재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각각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간구와 지도자와 무리들 사이의 완전일치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차이(출 33:16; 요 17:5)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떡에 대한 믿음(출 16:4, 15; 요 6:35), 빛에 대한 믿음(출 13:21-22; 14:20; 요 8:12), 선한목자(출 3:1; 요 10:11),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출 3:14; 요 6:35; 8:12; 10:9, 11; 11:25; 14:6; 15:1)에 대해서도 평행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본문상의 평행은 우연적인 것이기보다는 신앙교육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의도는 모세와 예수님을 평행시키기 위한 것이며, 모세와 토라(모세오경)에 폭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모세의 패턴에 따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12장 51절까지에서 나타난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기적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들의 모형이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표적, 특히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2:11; 4:48, 54; 6:14; 9:16; 11:47; cf. 2:26; 6:2),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기적과 관련해서 “표적과 기사”(3:12; 4:8-9; 7:3; 8:23; 10:1-2)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기사는 예수님의 표적을 모세가 행했던 표적의 원형과 실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예수님의 기적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10개의 재앙 가운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제외한 7개의 재앙에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의 순서에 따라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선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1-15절)와 풍랑진압(16-21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뇌성과 우박의 재앙(출 9:13-35)과 메뚜기 재앙(출 10:1-20)의 순서에 맞지 않을 뿐, 그 나머지는 출애굽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둘째,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초래한 부정적인 것인데 반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축복을 가져온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과 은총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모세의 열 가지 재앙과 예수님의 기적 대비			
	모세	예수님	비교
1	피의 재앙 (7:14-24)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1-11)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예수님의 기적은 은혜를 가져온다. 예수님을 완전한 새 모세로 부각시키고 있다.
2	개구리 재앙	생략	열 가지 재앙을 완전수 칠로 맞추기 위해서 생략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이 재앙	생략	
4	파리 재앙	생략	
5	생축 재앙 (9:1-7)	백부장의아들을 살리심(4:46-54)	이집트인이나 백부장 본인이 확을 당하지 않는다
6	독종 재앙 (9:8-12)	38년 된 병자 치유 (5:2-9)	재앙과 치유가 인간에게 있다
7	뇌성과우박의 재앙(9:13-35)	풍랑진압 (6:16-21)	자연하고 관련성이 있다
8	메뚜기 재앙 (10:1-20)	오병이어의 기적(6:1-15)	음식하고 관련성이 있다
9	혹암 재앙 (10:21-29)	장님 치유 (9:1-41)	볼 수 없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10	장자 사망 (11:1-12:32)	나사로의 부활 (11:1-44)	죽음과 관련성이 있다

(3) 신명기 유형론

라코마라는 출애굽기보다는 신명기에 나타난 고별설교를 중심으로 모세 유형론을 주장한다.

외적 유사성을 보면, 신명기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다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고, 두 지도자가 다 임종직전에 설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시대를 눈앞에 둔 계약 공동체들이다. 이 두 공동체가 모두 지도자를 상실 했고, 눈앞에 놓인 투쟁의 압박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 이스라엘은 열방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과 경고를 필요로 했다.

사상적 유사성을 보면, 두 지도자가 다 중보자로 강조되고 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두 지도자가 다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

고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신 4:7; 요 15:9)과 하나님의 임재 하심(신 12:11; 요 14:15-18)에 대한 약속된 보상도 같다. 또한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에 대한 관심도 같다.

(4) 유월절 유형론

빌헬름 빌켄스(Wilhelm Wilkens)는 요한복음을 세 단계, 즉 기적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음서 단계, 설교 참가단계(생명의 떡, 심판, 빛, 부활과 생명, 헬라인에 대한 설교, 고별설교, 서론 등), 그리고 유월절 주제 참가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요한복음을 유월절 복음서라 부른다.

하워드(J. K. Howard)는 예수님을 옛 질서의 완전한 모형이신 완전한 유월절 희생으로 제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 예들로서 '하나님의 어린양'(1:29-34), 유월절이 가까워짐(2:13; 6:4), 성전청결(2:13-25), 유월절 희생(19:14), 피를 쏟으심(19:34), 뼈를 꺾지 아니함(19:33-36; cf. 출 12:46; 민 9:12), 히숨(우슬초, 19:29; cf. 출 12:21-22)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을 유월절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 오후로 설정하고 있다(13:1; 19:14, 31, 41).

3.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이다. '변화'는 '회개'와 동의어이다. 이 '변화'를 강조하는 한 방법이 모형론(typology)이다.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과 복음의 모형이며, 모세와 율법은 흑암과 죽음을, 예수님과 복음은 빛과 생명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것을 숫자로 표시한다면, 빛과 생명을 7이라고 할 때, 모세와 율법은 숫자 6으로, 예수님과 복음은 숫자 8로 설명될 수 있다. 숫자 6는 7-1이 되고, 8는 7+1이 된다. 그래서 숫자 6으로 표시되는 모세와 율법은 -1이 되고, 숫자 8로 표시되는 예수님과 복음은 +1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더하기가 되는 살림의 일이 되고, 모세의 율법은 빼기가 되는 죽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란 말로 일곱 개가 나오는

데, 그 일곱 개의 표적이 한결같이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를 강조할 뿐 아니라,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새 시대를 위한 변화(요 2:1-11)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제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먼 옛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출 7:14-24)의 원형이다.

모세는 파괴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건설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 여기에 모세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차이, 율법과 복음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옛것의 상징은 '부족함'이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포도주가 모란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버렸다. 또 유대인들이 식사전후에 손발을 씻는 종교의식에 필요한 물을 담았던 돌 항아리도 '부족함'을 상징하는 숫자 6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는 옛것과 세상 것에는 인간을 복되게 하거나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모세와 율법으로 상징되는 옛것은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참으로 역부족이다.

2) 새 시대를 위한 믿음과 중생(요 4:46-54)

요한복음 4장 46-54절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병에서 고친 표적이다. 이 표적은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악질이 들게 하여 다 죽게 만든 것의 원형이다.

이 두 개의 표적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먼저 공통점은 주인이 직접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소유물인 가축이나 아들에게 재앙이 내린 데 있다. 둘째, 이 두 표적의 차이점은 '죽임'과 '살림'에 있다. 옛 시대의 상징인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죽임'이었고, 새 시대의 상징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살림'이었다. 구약

시대를 시작한 모세는 살아있던 가축을 죽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쳤고, 신약시대를 시작한 예수님은 죽어 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어 남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다.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과 ‘희생’이다. ‘믿었다’는 말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다. 이 ‘믿음’과 ‘희생’의 주제는 이 사건에 앞서 나오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떨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자 바닥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변화를 강조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소개되자마자, 제3장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었고, 제4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들 세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발견되는 주제는 ‘믿음’과 ‘거듭난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율법이 복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차별 없이 열려있는 새 시대를 강조하셨다.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새 시대를 강조하셨다. 또한 이 열린 시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는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에서 나타났듯이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대이며, 어둠이 빛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고, 쓰러짐이 세워짐이 되고, 병들어 고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희생과 생명이 넘치는 시대인 것이다. 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을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선포하셨고, 이방인인 왕의 신하에게 선포하셨다.

3) 새 시대를 위한 복음적 사고(요 5:1-18)

옛 시대의 특징인 율법적 사고패턴과 행동패턴 그리고 새 시대의 특징인 예수님의 복음적 사고패턴과 행동패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다.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 치유가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의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창조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두셨다. 그것 또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 금지에 두고 이것저것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일’을 유대인들이 ‘창조행위’로 본 것이 문제였다. 창조행위는 하나님의 일이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행위에는 세 가지 범주의 일들이 있다. 첫째는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는 것, 셋째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이 세 가지 범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살림의 일로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막건축과 관련된 39가지의 일을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로 보고, 이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범주로 확대 해석한 것을 비난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가 아니라, 인간들의 일, 곧 죽임의 일을 말한다.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생명의 일보다는 죽임의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인간들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예

배하며 그분의 살림의 일을 묵상하고 본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뜻이라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가르치셨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어찌다 한번 끊어오르는 물에 먼저 뛰어들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주어지는 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기회도 먼저 뛰어든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재앙 가운데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출 9:8-12)이 있다. 이 표적은 모세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준 첫 번째 재앙이었다. 모세의 이 재앙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의 모형이었다. 38년 된 병자치유가 예수님께서 개인의 고통을 직접 고쳐준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의 대표인 모세의 경우는 인간의 정상적인 육신을 병들게 만들었지만, 복음적인 사고의 대표인 예수님의 경우에는 병든 육신을 고쳤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4)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요 6:1-15)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세가 메뚜기 재앙(출 10:1-20)을 베풀었던 표적의 원형이다. 모세는 인간에게 엄청난 기근의 재앙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떡으로 민중을 배불리 먹였다.

이 표적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생명’이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표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민중을 먹이신 것은 오로지 자신이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이 있고 난 직후에 행한 설교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새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5) 새 시대를 위한 예수님 영접(요 6:16-21)

요한복음에 실린 다섯 번째의 표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이다. 이 표적 또한 '믿음과 생명'이 주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서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혹은 저편에서 이편으로 자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돌풍을 종종 만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폭풍 중에서 물위를 걸어와 목숨을 건져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런 특이한 경험이 후에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

신학적 설명에서는 호수 이편이 떠나야할 옛 시대가 되고, 호수 저편이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새 시대가 된다. 이편인 옛 시대를 떠나 저편인 새 시대를 향해 가는 데에는 히브리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혹은 이집트에서 참혹한 노예의 삶을 보냈던 것처럼,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폭풍에 좌절되거나 폭풍에 삼킨 바 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이기고 목표인 저편에 무사히 닿게 된다.

옛 시대의 상징인 모세는 이집트에 뇌성과 우박의 재앙(출 9:13-35)을 내려 파괴를 초래하였지만, 새 시대의 상징인 예수님은 폭풍을 진압하여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가져다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야 한다.

6) 새 시대를 위한 세상의 빛(요 9:1-7)

요한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여 고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고쳐서 빛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된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9:17),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9:33)과 “주님”(9:38)으로 믿고 고백하였다.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은 이미 1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1:4)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1:5)고 하였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면 맹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9:33)과 “주님”(9:38)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9:11)이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선지자’(9:17),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람’(9: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9:35-38)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어두움이 걷히고 광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자들, 즉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야기 마지막에서 눈 먼 자들로 지적당하고 만다. 이는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치유이야기를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이 두 장애인이 모두 안식일 날에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있고, 이 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 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로암 연못의 맹인치유에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기적이 모두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눈먼 청년이 실로암의 물을 통해 그

의 시력을 되찾았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참 빛을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물에 눈을 씻음으로 시력을 되찾은 맹인은 세례에 의해서 빛을 찾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다.

빛 생명 진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흑암재앙(출 10:21-29)과 예수님의 맹인치유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22-23절에 보면, “깜깜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 . .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모세의 기적은 온 땅을 어둡게 만듦으로써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게 만든 재앙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어둠 속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서 볼 수 있게 만든 기적이었다.

7)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요 11:17-27; 39-44)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은 믿음과 새 생명에 관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기적 가운데 열 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다(출 11:1-12:30). 이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장자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평행을 이룬다. 모세의 재앙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였듯이 예수님의 기적도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죽음’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모세는 생명이 있던 곳에 죽음을 가져왔고, 기쁨이 있던 곳에 통곡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었고,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다.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참된 종교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옛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자연법칙에

지배받지만, 복음은 생명법칙에 지배받는다. 자연법칙은 죽이는 것이요, 생명법칙은 살리는 것이다. 모세는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재앙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억압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민중을 풀어주고 해방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 자연법칙만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죽임의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림의 일을 해야 한다.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설교] 빛과 생명의 주(主), 독생하신 하나님(요 1:1-18)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에 권세가 크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행동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범적인 순례자로 소개하려했다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첫째, 변화의 주체자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로; 둘째, 빛과 생명의 주(主)님으로; 셋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넷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다섯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일곱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가지 모두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목적은 요한이 복음서 20장 31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가지 가운데 변화를 주제로 한 앞의 세 가지 곧 첫째, 변화의 주체 로고스; 둘째, 빛과 생명의 주(主); 셋째,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변화의 주체자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무가 변하여 유가 되고, 없음이 변하여 있음이 되고, 부재가 변하여 실재가 되는 긍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Logos)에서 나온 것입니다. 2,500년 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540?~? BC)는 로고스를 “변화의 주체자이면서 스스로는 변치 않는 진리”라고 정의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형태만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이든 성질까지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이든 자연상태에서의 변화는 빛에서 어둠으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커지는데, 이 법칙을 엔트로피(entropy)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부정의 변화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사람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관계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생명이 없는 물건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신앙조차도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망가짐이 변하여 고침이 되고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는 근원이 로고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빛과 생명의 주(主)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며, 혼란이 변하여 질서가 되게 하는 긍정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긍정의 변화가 로고스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 곧 살림의 능력이요 살림의 지혜요 살림의 은혜요 살림의 진리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란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

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씀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변화,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꼬집어 내리는 정치판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신뢰가 변하여 불신이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살림이 변하여 죽임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불신이 변하여 신뢰가 되게 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고, 죽임이 변하여 살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란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하게 되신 변화, 곧 하나님이 눈높이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성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남들과 차별시키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기피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밥상을 함께 나누셨으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는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런 비방을 무릅쓰신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눅 19:10)시키려는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낮아지기를 힘써야 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니까 수치의 상징이었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들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또 죄인

과 세리와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은혜와 진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신의 세상, 곧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 같은 세상, 뒤집어지고 엉망이 된 세상, 어둡고 혼탁한 세상, 죽임의 일이 활개 치는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세상,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세상, 주의 영광이 나타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긍정의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외아들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외아들이 변하여 많은 자녀들의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독식할 수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기꺼이 수용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요 20:17)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변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변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는 변화,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이 되게 한 변화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변화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변화는 변화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인데, 그 믿음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들, 곧 부정이 변해서 긍정이 된 사건들을 소개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긍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를 살리는 변화, 부족이 넘침이 되는 변화, 없음이 있음이 되는 변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키워드는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이 부족과 없음을 넘침과 있음으로 바꿔놓게 한 원동력 그리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는 칭찬을 받게 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접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고 고백한 유대인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생의 변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능력이란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15-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였습니다. 또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의 피가 절반쯤 섞인 불결의 상징인 사마리아 여성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물이 변하여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고 부정한 여인이 변하여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이방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죽어가던 자신의 아이가 소생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성 그리고 이방인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남녀노소와 민족과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나타난 변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적 사고(思考)가 병든 자를 살리는 열림의 사고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6장 1-15절에서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광야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렘다 과부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와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6장 16-21절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표적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이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타고난 맹인을 고치신 표적에서는 예수님을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죽음에 생명을 주시고, 슬픔에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나갈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13개의 바울 서신으로 접어든다. 바울 서신은 신약성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들은 쓰인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로마서가 가장 길고 빌레몬서가 가장 짧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앞에 나오고 빌레몬서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선교서신이라 부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며, 디모테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

부산한 항구 도시로써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서부지역 수도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데살리(Thessally)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바울, 실라, 디모테, 누가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 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경이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전도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3주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만큼 성장했고,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며,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박해를 피해서 베뢰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간 정착한 바울은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두 서신을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데살로니가전후서의 기록 목적은 시련 중에 있는 새신자들을 격려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일상생활에 소홀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주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바울의 이 두 서신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의 초기 선교지에서의 설교는 임박한 주의 재림이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테의 보고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었다.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

을 사모하였고, 가르침대로 잘 지키고 있었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다. 그러나 디모테의 보고 중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었으며,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하였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체 47절 가운데 38%인 18절이 종말에 관한 내용일 정도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였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설교]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살전 2:19-20)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의 도시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데살리(Thessally)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일행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1년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바울일행이 이곳에 머문 것은 고작 세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신생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자, 신약성서 27권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입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철학의 고장 아테네를 거쳐 그리스 남단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간 정착한 바울은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머물다 내려온 디모테로부터 교회소식을 전해 듣고 큰 기쁨과 힘을 얻습니

다.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고, 가르침대로 잘 행하고 있었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높이 평가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기대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신자가 있었는가하면, 부정한 생활을 끊지 못하는 신자도 있었고,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신자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과 5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극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1장 3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보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이뤄진 순종, 믿음에서 나온 헌신을 말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행한 수고들, 사랑의 봉사, 사랑실천을 위해서 흘린 땀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것, 극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찬을 들은 것은 그들의 노동과 수고와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삼박자에 맞춰서 성도들이 힘차게 부른 땀과 수고와 인내에 감격하였고, 그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장 6절과 2장 14절의 말씀대로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일행과 주님을 본받았고, 예루살렘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도 믿음 위에 굳게 섰던 것처럼, 성도들이 같은 동족인 헬라인에게 박해를 받고도 예루살렘교회를 본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 세 번째 이유는 2장 13절의 말씀대로 바울일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비록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

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3장 7절, 9절 그리고 4장 9절의 말씀대로 궁핍과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보인 믿음과 사랑이 바울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3장 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라고 감격해 마지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성실한 신앙생활은 바울일행이 뿌린 수고의 결실이었으므로, 이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삼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인내는 바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상급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상할까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4장 3절에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고, 5장 16-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져다주는 열매요 결정체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없이, 수고하는 사랑 없이, 인내하는 소망 없이 이뤄지는 것은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땀이 아무리 많고, 수고와 인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공동체내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지 않은 노동과 수고와 인내는 다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음란한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저자는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 사랑으로 행하는 일, 소망으로 행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가마를 타기도 하고 가마를 메기도 하는 일처럼 피차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는 ‘소망’이란 이름의 가마꾼이, 뒤에서는 ‘믿음’이란 이름의 가마꾼이, 또 가마에는 ‘사랑’이란 신부가 타고서 신랑이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신부를 태우고, 소망은 앞에서 인도하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소망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 함께 역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문학자 오스카 와일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준 몇몇 사람들을 그 후에 다시 만나시는 것을 가상으로 꾸며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는 폐인이 다된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소?” 술주정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앓은뱅이였을 때, 당신이 나를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닐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동안 직업을 찾아 헤맸지만, 마음에 드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고독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불량자였습니다. 그 불량자는 이웃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소?” 불량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였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모두 신경을 돋우고 귀찮고 화나게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치고 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의 세 사람이 전에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소망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일, 소망으로 행하지 않은 일들은 음란한 것이고, 그 속에서 결코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옛 사람의 악습을 다시 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저자를 알 수 없는 「토끼의 보이지 않는 거북이 사랑」이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고 있는 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며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면서도 자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 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곧 자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무엇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며, 무엇이 소망으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티 내지 않는 것이고, 소리 내지 않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높여지고 나는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개화기 때, 6조(六曹)에서의 점심식사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서나 참판과 같은 당상관(堂上官)이 맨 처음 먹고 나면 그 상을 물려 정랑(正郎)이나 좌랑(佐郎)과 같은 당하관(堂下官)이 먹고, 다시 그 상이 물려져 아전이 먹고, 아전이 물려 종들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그토록 길었습니다. 이를 ‘네물림 상’이라 불렀는데, 윗사람들은 상물림을 배려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메말라 수척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를 ‘양상 수척’(讓床瘦瘠)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는 일에 관심과 배려와 양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 사랑으로 행하는 일, 소망으로 행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기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일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믿음으로 행한 노동이 되고, 우리의 노력한 수고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온 일들이 소망으로 행한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거룩하여지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살후 1:3-12)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최초의 것이며, 신약성서 27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쓰인 글입니다. 이들 서신은 그리스 최남단에 위치한 아가야도의 수도 고린도에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일행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천막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로부터 충분한 일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체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였고, 상업, 체육, 종교, 문화 등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거점으로 삼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9KM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미아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 이스트미아에서는 포세이돈에게 헌정되는 대규모 축제와 운동경기를 2년에 한번씩 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

도는 천막수요가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 선교거점으로 삼고,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비레아교회 등에 디모데 등의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사역토록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로 이곳 고린도에서 기록되어 인편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서신들의 배열은 크기를 잣대로 삼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인 글인지, 후서가 먼저 쓰인 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서가 후서보다 앞에 놓인 것은 후서보다 전서가 길기 때문입니다. 어느 서신이 먼저든 간에 바울이 이 두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시련 중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일상생활에 소홀히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주의 재림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후서의 내용을 보면, 전체 47절 가운데 38퍼센트인 18절이 종말에 관한 내용일 정도로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언급하면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주의 재림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우리는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기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믿음으로 행한 노동이 되고, 우리의 노력한 수고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온 일들이 소망으로 행한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1-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로 되어

있고, 3장은 성도들을 위한 축복과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그것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에서 성도들을 위하고 그들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장 3-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란 점이고, 또 감사와 칭찬보다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더 큰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마음먹고 파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리본에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본 세 개를 더 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회사의 부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진로문제를 잘 지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는 리본을 달아드렸고, 한 장을 더 주면서 가장 소중한 준에게 달아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사장은 사장에게 찾아가 파란 리본을 달아 주면서 “사장님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래 사장은 인색하고 고집 세고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자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장은 집에 와서 17살 된 아들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 내가 차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것은 바로 너였다. 공부 안한다고 소리치고 방정리가 안됐다고 야단을 치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를, “사실,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줄 알고, 내일 아침에 자살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마터면 잃을 뻔한 아들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또 바울의 칭찬을 듣게 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칭찬을 듣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3-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첫째로 믿음이 일취월장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둘째는 피차 풍성하게 사랑하였으며, 셋째는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전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따랐고,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와 따랐으며, 그들의 소망에는 인내가 따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일궈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울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3절과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항상 했고,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바울이 친히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당연한 수고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찾

을 수가 있고,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칭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책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나 전도에 임하는 자세뿐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나 되었느냐, 소망 중에 얼마나 참고 견뎠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분열과 음행과 법정송사와 우상숭배와 고기 먹는 문제와 예배질서의 문제와 헌금문제와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등의 문제를 갖게 된 모든 근본 원인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고전 2:1), 말과 행동에 본을 보였으며(고전 4:16),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다(고전 9:15). 바울은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성구가 고린도전서 9장 18-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

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전 9:18-22).

둘째,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에서 성도들을 위하고 그들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권면과 책망에 앞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과 불평과 책망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후서 1장 11-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2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말로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장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고,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고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중보의 기도와 아낌없는 칭찬과 수고에 따른 감사의 말과 축복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에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데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깨끗한 걸레와 튼튼한 버팀목과 강한 밀불을 강조하였는데, 밀불은 사랑이요, 버팀목은 믿음이요, 걸레는 소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걸레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소박한 소망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더러움을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소박하면 분을 내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넘쳐납니다. 튼튼한 버팀목처럼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를 꺾으려했던 그들이 오히려 휘어지고 꺾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어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와 분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밀불처럼 뜨겁게 타는 사랑을 가지면 모든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믿음으로 행한 노동이 되고, 우리가 노력한 수고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온 일들이 소망으로 행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인내가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에 고린도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당시인 주후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이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역할이 컸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였다.

‘고린도’는 인구 10만 명 정도에 노예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업 도시로써 아테네 남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 고린도는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어서 선원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수천 명의 성창들이 상주했다고 한다. 사랑과 정욕의 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예배는 이들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란의 정도가 심했던 도시였다. 또 고린도에서 좀 떨어진 델피에는 피톤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래에 관한 예언을 묻기도 하고 해답을 얻기도 했다. 선원의 출입이 잦고, 노예가 많은데다가 종교가 성적인 타락과 열광적인 신앙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서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아니한 고린도교회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친 것 같다.

고린도전서는 글로에를 통해서 보고 된 고린도교회 내에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온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되어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내에 생긴 파벌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다. 5장은 성적인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 간음하는 자가 있었고,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6장의 전반부는 소송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 교인들 간의 대립이 생겼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생겼다. 6장의 후반부는 방종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열광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방탕에 빠졌다. 7장은 결혼

과 독신에 관한 내용이다. 기독교인의 결혼, 재혼, 또는 이혼에 관한 질의 내용이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질의 내용이다. 11장은 기독교 예배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예배 참석 때의 복장문제와 성만찬 때의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 안에 번진 종교적 흥분과 광신주의를 바로 잡고 있다.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16장은 헌금에 관한 내용과 문안 인사로 되어 있다.

[설교]인간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는?(고전 1:18-25, 2:1-5)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에 그리스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아가야지방의 행정수도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 일행이 제2차 선교여행 당시, 그러니까 지상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진지 20년만인 주후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교인들이 직접 물어온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핵심주제를 간략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벌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5장은 성적인 타락, 6장은 소송문제와 방종, 7장은 결혼과 독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숭배, 11장은 예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15장은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은 헌금에 관한 내용과 문안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문제가 아닌 구원의 도리를 언급한 부분인 1장과 2장

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는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 해답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그 해답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道)란 영어로 메시지(message) 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틀로써 죽음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당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시대에 지혜를 자랑하던 헬라인들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날에는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의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20절에서 바울은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총명한 자도 없고, 학자도 없고, 철학자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뜻은 그 다음 절인 21절에서 밝힌 대로,

이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 없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지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계시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자연계시의 한계점을 밝힌 사람입니다. 자연계시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23절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9-20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자연계시를 밝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 자연계시로써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연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여부를 밝힐 수는 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도들의 설교뿐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2-23절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도"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들만이 믿어지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이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설명입니다.

칼뱅은 성령의 조명론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칼뱅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할 재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한 선택과 깨우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먼저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쳐 깨우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그 미련함, 곧 "십자가의 도"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미련함,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 써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멸망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인간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바보들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간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것인가를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로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은 동굴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혀 정면의 벽만 바라보도록 족쇄에 묶인 인간은 배후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참된 실재라고 착각합니

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다른 어떤 실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그림자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가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그가 그림자의 원천, 즉 불의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나 우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그가 보이는 세계 배후에 숨어있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족쇄 때문입니다.

동굴의 비유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죄수를 엮어매고 있던 족쇄가 풀립니다. 족쇄가 풀린 인간은 비로소 이리 저리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이것저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가 이제까지 보고 알았던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동굴의 비유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족쇄에서 풀린 죄수는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자연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사단이란 족쇄에 매어 죄란 동굴에 갇혀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족쇄를 풀어주셨습니다. 족쇄가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의 동굴에서 나와 밝은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기었습니다. 이 해방, 이 빛과 생명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았던 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표적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5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뜻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굶주린 배를 채워줄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을 합해놓은 인물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리졌다는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분이라고 하니까 기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다는 뜻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이데아세계로 인도해줄 지혜를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데아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gnosis)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가져다 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지혜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구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헬라인들이 찾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1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들을 얻는 확실한 능력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고 찾던 것들을 얻는 분명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언급한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 120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5년 가을 또는 겨울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되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서신은 교리나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바울 자신과 관련된 서신으로써 눈물과 화해와 변호와 반대와 호소와 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초대교회의 정황을 상세하게 엿볼 수 있었던 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정황을 상세하게 엿볼 수 있다. 첫째, 바울은 불신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일부 교인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교인들로부터는 인간적인 모멸과 멸시를 심하게 받았다는 점; 둘째, 바울에게는 간질 또는 안질로 추측되고 있는 “사탄의 사자” 또는 “육체의 가시”라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 셋째, 바울은 외모가 잘 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에 관해서는 2세기에 저술된 『바울행전』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바울은 “작은 체구에, 맞닿은 양미간, 코는 좀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으며,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넷째, 바울의 편지들은 권위가 있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다는 점; 다섯째,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18개월이나 장기 체류하면서도 고린도교회로부터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엿볼 수 있다. 바울의 신체적 결함은 극심한 고문과 박해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고린도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노예근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린도전후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린도후서는 3부로 되어 있다. 제 1부, 1장에서 7장까지는 오해와 해명의 글로써, 여기서 바울은 사도직의 진실성과 사도직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제 2부, 8장에서 9장까지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요청하는 글이다. 제 3부, 10장에서 13장까지는 대

적자들을 반박하는 글이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열광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외모와 언변과 권위와 교훈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고린도교회 내에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불만은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 복음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 헌금 호소에 대한 냉담한 반응,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전한 의심, 바울의 행동이 불투명하다는 의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오해, 멀리 있을 때에는 담대하다는 비난, 바울의 선교업적에 대한 배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눈물과 화해와 변호의 글로 나타난다.

[설교] 화해의 복음(고후 5:17-21)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바울은 갈등해결의 근거와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그 내용을 적어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고린도후서 5장 17-21절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인간과 심각한 갈등관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계신가를 설명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해결의 열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갈등을 푸는 것이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요, 이 선결과제를 해결한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인간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5년 가을 또는 겨울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서신들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교리나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바울 자신과 관련된 서신으로써 눈물과 화해와 변호와 반대와 호소와 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사정을 상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대다수의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격심한 박해말고도, 다른 일부 교인들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에게는 간질이나 안질로 추측되는 "사탄의 사자" 또는 "육체의 가시"라고 밝힌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시세말로 얼짱이나 몸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세기에 저술된 『바울행전』은 "작은 체구에, 맞닿은 양미간, 코는 좀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으며,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넷째, 바울은 그의 편지들은 권위가 있었으나 직접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18개월이나 장기체류했으면서도 교회로부터 전혀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체적 결함은 극심한 고문과 박해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고린도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은 교인들의 노예근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약 10만 명이 되는 도시에 노예가 3분의 1이나 되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총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 1장에서 7장까지는 오해와 해명의 글로써, 여기서 바울은 사도직의 진실성과 본질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2부, 8장에서 9장까지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요청한 글입니다. 그리고 제3부, 10장에서 13장까지는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반박의 글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공격은 대체로 바울의 외모와 언변과 권위와 교훈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 적대자들의 활동으로 교회 내에 바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 복음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 헌금호소에 대한 냉담한 반응,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전한 의심, 바울의 행동이 불투명하다는 의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오해, 멀리 있을 때에는 담대하다는 비난, 바울의 선교업적에 대한 배격 등으로 타나났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눈물로 화해로 변호로 대응합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성구가 제1부 해명의 글속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21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구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이 성구는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던 사람이 빛과 생명의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며,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반목이 화해가 되고, 갈등이 평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절씩 살펴볼 텐데요, 18절과 19절은 평형구절로써 동일한 설명을 두 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해도 좋을 것 같고요, 20-21절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의 첫 소절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는 17절에 선포된 내용 곧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또한 선포된 화해복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화해복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끼리의 화해나 자연과의 친화도 ‘내리사랑’ 또는 ‘내가먼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과 19절의 중간소절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는 화해복음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 있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화해복음의 하나님방식은 19절 중간소절과 21절 첫 소절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방식이란 것입니다. 이 하나님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주

와 죽음을 받아야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에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화해정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18절과 19절의 마지막 소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탁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개혁과 보수 또는 반노무현과 친노무현의 사생결단의 전쟁터에 내몰린 느낌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2,000년보다 더 오래 전에 율리우스 시저가 말했다고 하듯이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현실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인데, 이 점을 지적한 사람이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1620년에 쓴 『노뭉 오르가눔』(Novum Organum, 新器官)에서 인간의 지성이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휘방하는 편견으로 네 가지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종족이상인데요,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써 자기 편견에 맞는 사례에 마음이 동요되는 편견을 말합니다. 둘째는 동굴이상인데요, 동굴에 갇혀 있어서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역할, 편협한 교육 등으로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셋째는 극장이상인데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면서 허구에 미혹되듯이 잘못된 논증이나 학설에 미혹되는 편견을 말합니다. 넷째는 시장이상인데요, 시장에서 조심성 없이 주

고받는 여론에서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예리한 지성적 판단 없이 여론에 휘둘리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수백 년 전 베이컨이 지적한 대로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홍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싸움질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싸움을 하는 마당에서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은 싸움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누이가 비록 때리는 제 어미를 막으며 싸움을 말린다 해도 그 시누이의 마음이 제 어미 쪽에 기울어져 있다면 맞는 떠느리로써는 더 기막힌 일이 될 것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오늘의 현실이 앞서 이야기한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숭배 때문이 아닐까요?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자기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설사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무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해도, 적어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배워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방법으로 존재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20절 마지막 소절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모든 화해의 근원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모든 화해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화해들은 정치적인 타협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인 타협은 자기 쪽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128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흑해 쪽으로 터키 동북방향에 위치한 북갈라디아로써 벳시누, 다비움, 안기라와 같은 도시들이 포함된 이 지역의 명칭이 갈라디아였다. 다른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남갈라디아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디모데의 고향이며, 바울이 들에 맞아 구사일생한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행정상 갈라디아주에 속하고 있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라는 지역명칭을 가진 북갈라디아에 보내졌는지, 행정상 갈라디아주에 속한 남갈라디아에 보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 불리우는 책이다. 이 서신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서신이다. 루터는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은 내 아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고데(Godet)는 “이 서신은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기원이다. 이 서신은 인간의 영적 해방에 대한 일찍이 없었던 소중한 문서이다.”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첫째, 1-2장은 바울의 전기적 해설로써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이다. 둘째, 3-4장은 교리적 해설로써 율법의 속박과 이신칭의에 관한 논증이다. 셋째, 5-6장은 윤리적 훈계로써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이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이 숨어들어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에게 구약의 할례의식

이나 유대 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했고, 영지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은 구원과 자유의 의미를 왜곡시켜 도덕적 방종에 빠져들게 했으며,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잘라 말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대하며,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 만치 바울을 사랑하는 좋은 분들이 많았다.

[설교]바울의 신앙생활(갈 2:20)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 불리는 책입니다. 이 서신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서신입니다. 루터는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은 내 아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고데(Godet) 라는 신학자는 "이 서신은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기원이다. 이 서신은 인간의 영적 해방에 대한 일찍이 없었던 소중한 문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대하며,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만치 바울을 사랑한 신실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헬라의 영지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이 숨어들어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에게 구약의 할례의식이나 유대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했고, 헬라의 영지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은 구원과 자유의 의미를 왜

꼭시켜 도덕적 방종에 빠져들게 했으며,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갈 2:16)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주신 말씀이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한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살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고백이 사도 바울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여기서 “내가”는 우리 모두를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란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고, 성경에서는 부족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피조물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운명을 타고 났거나 죄의 열매를 맺을 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과 칼뱅은 이 운명이나 씨앗을 원죄란 개념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인간을 아예 타고난 죄인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또 어거스틴과 칼뱅의 생각과는 달리 원죄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범한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피할 길도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라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나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뜻을 함께 갖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버려두면 모든 것이 망가지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하게 되면 죄악을 피해갈 길이 없는 우리 인간으로써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의 크기가 인생의 짐보다 작게 보여 믿음을 잃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란 사실을 잊게 되고, 망망대해에 혼자 있다는 고독감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빛과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2장 19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택과 예정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제 오늘에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특별한 선택과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기로 작정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몫인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천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실 때에도 우리는 영으로써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상징적인 의미지만 물속에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침례 또는 세례식 때의 물은 무덤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노아홍수 때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복지 앞에 놓인 요단강물도 그랬고,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의 물도 그랬고, 하늘 보좌방 앞에 펼쳐진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빠진 바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바다도 그랬고,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바다도 그랬고, 큰 음녀가 앉은 물도 그랬고, 그리스신화에서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로 통하는 아케루시아(Acherousia) 호수와 아케론(Acheron) 강과 스틱스(Styx) 강이 모두 흑암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례식 때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 죄의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바 되고” 라고 하였고, 로마서 6장 3-6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연합”이란 단어는 ‘함께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심겨졌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때에 우리

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현재완료수동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충만한 기쁨으로 구원의 문(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지난날의 죄과를 다 용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였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둘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한 말씀은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이 들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말합니다(존재).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주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11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우리가 유일한 자식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잔나가 각각의 자녀에게 썼던 편지를 읽게 되면 그녀가 19명의 자녀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한 명 한 명이 그녀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잠시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의 존재를 알고나 계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라는 의심이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크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해주는 척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

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긍정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본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힘으로, 아들을 신뢰 함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자 그리스도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바울에게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후 57년 또는 58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

기록 목적은 로마 방문의 계획을 알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혹 있을지도 모를 오해와 스페인 전도에 필요한 선교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 문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구원문제, 6장부터 8장까지 성결문제, 9장부터 11장까지 선택문제,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1장 1-17절에서 복음과의 관계설정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를 말하였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칭의 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며,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구원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근원으로, 인간의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를 설명하였다. 6장부터 8장까지 성결문제에서는 침례 또는 세례를 통한 중생의 출발을 구원의 시간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성결과 거룩한 삶을 구원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3장부터 5장까지의 칭의의 주제가 6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성화의 주제로 바뀌고 있다. 이로써 구원의 근원, 구원의 수단, 구원의 시간,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모두 설명된다. 특히 6장 1절부터 7장 14절에서 바울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원칙 혹은 의무를 확립하였고, 7장 15-25절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혹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상황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8장에서는 이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내주동거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선택문제에서는 구원과 봉사를 위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12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성도

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다.

[설교] 믿음으로, 차별 없이, 값없이(롬 3:21-24)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39가지 범주와 율법조항 613개를 만들어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죄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다른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 방법은 구약성경의 율법서들과 예언서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성공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아무도 자기행위나 노력으로써는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목표수치를 7 또 777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23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수치는 6 또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 또는 영어로 “fall short of”는 7미터 넓이의 죽음의 계곡이 있고 또 반드시 그 계곡을 뛰어넘어야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멀리 뛰기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8미터 정도는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최고 6미터까지 밖에 뛸 재능이 없으므로 결국엔 모두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질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임

니다. 피조물 곧 만들어진 자 또는 만들어진 것에는 완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숫자 7을 '하나님' 또는 '완전'이라고 했을 때, 피조물인 인간은 숫자 6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지성을 가진 고등한 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숫자 7과 6은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7은 '완전'을, 6은 '부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6은 7이 되지를 못합니다. 6은 타고난 운명이 '부족'이어서 '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나 숙명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법 39가지와 율법조항 613개를 만들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외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미치지 못함' 또는 '부족'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이 부족한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부족을 채워 완전케 도달할 다른 방도가 없는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방도는 없는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도달할 방도는 없는가? 예, 방도가 있습니다. 그 방도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계곡을 "은혜로 값없이"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계곡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 곧 숫자로는 8 또는 888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환언하면, '믿음'이란 통행증만 가지면 그 다리를 무사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I=10,e=8,s=200,o=70,u=400,s=200)라는 이름은 헬라어 음가로 888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의 표'나 '짐승의 표'는 이런 통행증의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국행 인침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박해시대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짐승의 표가 있었습니다. 주후 250년 데키우스 황제는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로마신들의 형상에 참배

하고 분향한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서인 '리벨루스'(libellus)를 소지하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리벨루스'는 증명서란 뜻인데 이 통행증이 바로 일종의 짐승의 표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24절에 쓰인 핵심 키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없이,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행 통행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병든 육체와 정신을 고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인간은 만들어진 자이고, 만들어진 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또 과거에 아무리 못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던질지언정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 죄지은 인간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와 죽음을 당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잘나고 못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으로 믿는 것(롬 10:9)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만을 보시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죽어 가는 모든 것, 또는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죽어 가는 것들 또는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기에 앞서 믿음을 보십니다. 결과를 보시기에 앞서 성실함을 보십니다. 과거를 묻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거 다섯 남편이 있었고, 현재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던 한 불행한 여성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한 여성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 몰매를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한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성의 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가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0-11)고 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천국행 통행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통행증에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국적도 신분도 피부색도 나이도 학력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무슨 ‘짱’이란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습니다. 1800년 정조대왕이 죽고 정순왕후와 흥낙안이 이끄는 복인 벽파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드렸던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다수의 남인 시파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천주교를 박해할 당시, 그 죄목들 가운데 한 가지가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타파로 반상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첩의 자식을 서자라 하여 좌족(左族), 반사(半士), 사점박이 등으로 천대받고 과거도 보지 못하고 제사에서도 소외 받았으며 가계(家系) 상속에서도 소외 받기가 다반사였습니다. 19세기 초엽 신자가 비신자를 전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컸던 고충이 다름 아닌 양반 상놈, 적자 서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은 계급으로 인식

하는 기독교의 평등사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천당은 좁고 입구도 바늘구멍 같아는데 어떻게 상놈이나 서자가 또 미천한 계집이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는 것이 믿음을 외면하는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동원된 선교 도구가 바로 프랑스 신부들이 신고 들어온 양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그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지아비도 지어미도 또 어른도 아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양말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하고 양말을 신겨만 보이면 손쉽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1839년에 순교한 베드로 신대보(神大輔)가 샹스탕 신부에게 부친 편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바울서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F자를 새기고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로써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접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6절에서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노예 이상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로써 영접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나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셋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값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천국행 통행증에는 값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돈이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란 법정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유죄한 인간을 믿음 하나만 보시고 무죄를 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믿는 자가 실질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간주된 의'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하여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것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또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하심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값없이 천국행 통행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롬 10:9).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죽이려 하고 짓누르는 죽임의 생각, 죽임의 일들을 극복하고 살림의 생각, 살림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롬 8:37)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런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
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값없이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숭선하는 하나님의 정신 곧 복음의 정
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회람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약 530M의 대리석 도로가 항구로부터 동쪽 25,000석 극장까지 뻗어 있었고, 도로 변으로는 시장이 형성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에베소는 로마의 여신 다이아나 또는 헬라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고대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가로 129.5미터, 세로 67미터, 높이 18.2미터 기둥이 127개나 되는 유명한 신전과 ‘아시아 관원’이라 불리는 종교담당 공무원이 있을 만큼 종교적인 도시였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제 3차 선교여행의 전진기지로 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여러 젊은 동역자들과 함께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였으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전도자를 파송하여 주변 도시들을 복음화시켰다.

에베소서는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교회론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하며,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하며, 서로 복종해야 하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설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엡 3:1-12)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 셀축에 위치하고 있고, 2천년 전에는 인구 25만 명이 살았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상업,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여신 아데미(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월드컵축구경기장의 것보다 길이가 24.5미터나 더 긴 129.5미터였고요, 폭은 월드컵경기장폭인 68미터에 1미터 부족한 67미터였습니다. 그리고 6층 높이에 달하는 18.2미터나 대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하니 그 웅장함과 크기가 어떠했을 지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는 '아시아관원'이라 불리는 종교담당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주후 55-58년 사이에 2년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이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 디도, 누가 등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교회에 관한 글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반부에 속하는 본문 3장 1-12절의 말씀은, 2절에서 밝힌 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섭리, 경영, 결정 등의 뜻을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11절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경영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속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유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특권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든 결정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이며 경륜이고 섭리이며 경영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1장 4-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1:4-5).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십니다(1:7).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1:9).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십니다(1:11).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주십니다(1:13). 그러므로 교회는 소유자 개념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것이며, 설립자 개념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며, 통치자 개념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공동체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둘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5-6절에 따르면, 신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결정을 말합니다.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감춰뒀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눌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2:1-3).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좇고, 육체의 욕망과 생각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해당되는 일, 죽이는 일 또는 죽임의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충만한 사랑으로 살리는 일 또는 살림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고, 육체의 욕망을 좇아 죽임의 일만을 일삼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습니다(2: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 특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나 됩니다.

셋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 자체가 “신비”로써(3절) “그리스도의 신비”인데(4절),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3절). 따라서 바울에게는 이 신비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일컬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주님께 받아 전한 것이라고 했고, 본문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5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

에게 감춰져 있었던 것이요(고전 2:7),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한 것입니다(5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신비이자, 복음의 비밀이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자(8절), 하나님의 신비한 경영입니다(9절). 2장 20절에 보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인 신약성경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넷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9절에 따르면, 교회로 하여금 이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고,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밝히신 목적은,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의 지혜가 밝혀지게 하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그 목적의 실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둘째 신약 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셋째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넷째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성장되려면, 먼저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 과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론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론은 안내표식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어디로 갈 배인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날 배인지, 승선을 해도 좋을 배인지, 승선을 해서 안 될 배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점에서 교회론은 배에 오르지 아니한 교회밖에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승선해야 할 사람과 승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뉘집니다. 또 승선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도 그 배의 성격이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교회론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을 경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승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회항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불필요한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승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쓴맛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교회도 복음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천국행 여행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가 파는 상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상품을 잘 모르고서는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만이 갖는 특성화된 상품 또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잘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끌려가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남들이 상품을 잘 파는 이유는 우리 상품보다 질이 좋아서라기보다, 혹시 그들이 자기 상품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록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팔지 못하는 데는 자기 상품에 대한 연구나 자긍심이 부족한 탓은 아닐까요?

자기 상품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이 좋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남들은 우리 것의 진가를 알아채고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성만찬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짚신을 삼아 팔던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잔털을 제거한 후에 시장에 내다 잘 팔았고, 아들은 잔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

에 잘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 진열 등은 상품 못지않게 판매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면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받게 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 내다 팔면 비싼 상품으로 둔갑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교회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입각하여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둘째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셋째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넷째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분명한 교회론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어를 “마음을 같이 하는 해”로 정했고, 출석목표를 40명으로 잡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님들, 이런 확고한 교회론에 입각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52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빌립보는 금과 은이 많은 지역으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였다. 또 빌립보는 주전 27년에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우스가 삼두통치 때인 주전 33년에 안토니우스와 힘을 합쳐 로마공화정의 마지막 옹호자이며,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 와 케시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제국을 탄생시킨 전투지였으며, 전투이후 로마의 직할시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시민권의 소유자였으며, 자치와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면제와 이태리에 사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노예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근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반면(고후 8:2),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도 선교 지원은 고사하고 바울의 아픈 부분을 꼬집어 괴롭게 했다.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이며,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최초의 장소이다. 마게도냐는 칼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복음으로 온 유럽을 정복할 참이었다.

빌립보 교회의 창립멤버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노예소녀와 감옥의 간수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여러 종류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뿐 아니라, 자신의 투옥이 결단코 복음의 퇴보가 아님을 알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

다. 또 바울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과 율법주의를 삼갈 것을 경고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관한 단어가 16회나 반복해서 나온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쁨'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인의 삶의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또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성육신, 그리고 승천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나오고 있고, 겸손의 삶,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염려를 버리는 삶,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 있다.

[설교]모든 일을 주 안에서(빌 4:4-7)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어린이 관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시다만, 우리 가운데는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지 않고, 또 오늘 살펴볼 차례인 빌립보서의 내용이 가정의 달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던 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선교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건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의 유럽선교 최초의 도시이며,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최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는 칼로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기독교복음으로 무장한 용사요, 복음으로써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말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자주옷감장사 루디아와 점치던 노예소녀와 교도관가족으로 시작된 몹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시민권자들로 구성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고, 바울일행의 선교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이 노예출신이 많았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교회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 8:1-5).

빌립보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고 풍성한 연보로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심히 가난하지만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온몸이 상한 후에 깊은 옥중에서 힘차게 부른 기쁨의 노래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서신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선교헌금을 보내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자, 옥중에서 부른 기쁨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 또는 ‘기뻐하다’란 단어를 열여섯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흑암 중에서 빛을 바라보고, 혼돈상태에서 질서를 찾으며, 죽음상태에서 생명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심령천국과 가정천국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요, 일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될 것이고, 365일 모두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이 누린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낱낱이 살펴보았더니, 바울의 기쁨은 그 근원이 첫째는 주안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둘째는 성도들 안에 있었고, 셋째는 복음전파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번 사용한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말 가운데, 5번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거나 또는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2:29, 3:1, 4:4,10). 바울 자신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4:10)한다고 했고,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3: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별들처럼 빛의 일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2:17-18)고 하였고,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1:5)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한다(1:4)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1:25) 성도들 간의 우애와 사랑은(2:4) 바울의 기쁨이요 월계관이라고(4:1) 하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누린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1:18)고 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그 근원이 첫째는 주 안에서 있었고, 둘째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커가고 발전하는데서 있었으며, 셋째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락이나 평안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찾았으며, 자기 자신의 출세나 성공에서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성장과 발전에서 구했으며, 자기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데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옥중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고, 모든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과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는가

를 알 수 있습니다. 일신의 안일과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튼튼하게 그리스도 안에 박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건강한 생각과 건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마음을 맑게 하고 신념을 튼튼히 하며 사랑의 불을 뜨겁게 달굴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란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매우 자주 그리고 대단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용한 경우만 치더라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셋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할일이 그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3장 14절에서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였고,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고,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1:6),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2:13),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4:13), 우리의 근심(슬픔)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2:27),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4:7),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4:19),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3:21).

셋째,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할일들을 보면, 주 안에서 편지로 교제

하고(1:1), 주 안에서 사랑거리로 삼고(1:26), 주 안에서 신뢰하고(1:14), 주 안에서 바람이 되고(2:19), 주 안에서 확신하고(2:24), 주 안에서 기뻐하고(2:29, 3:1, 4:4,10),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4:2)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주 안에서” 이뤄지고, 바울 사도가 하는 모든 일도 “주 안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도 “주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인정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신뢰가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1:6),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2:13),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4:13), 우리의 근심(슬픔)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며(2:27),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4:7),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4:19).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게 되면, 이밖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마음에 자신감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셋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넷째,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게 됩니다.

여섯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일곱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제인’인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녀에게 별명을 붙여 줬는데요,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인은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처럼 밝고 명랑하고 자애로운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처럼 늘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제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깃발과 같다. 성에 왕의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곳에 왕이 와 계시다는 뜻이지. 마찬가지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기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으니, 나한테서 기쁨이라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의 전도자는 성도들의 밝은 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 160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골로새는 인근지역이 화산지대여서 위험도 따랐지만 비옥한 땅과 옷감생산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바울 일행이 제 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무는 동안 에바브로가 이 곳에 교회를 세웠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전반부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몸에 지닌 분',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다. 바울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의 허구성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족성을 피력했다. 후반부 3-4장에서는 땅엿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 것을 구하며, 성화와 사랑의 띠를 매며,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첫째, 초등학문의 위험이 있었다. 초등학문의 위험은 주로 천사숭배나 점성술에 있었다.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했다. 점성술은 인간의 운명이 출생과 얽혀 있는 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별점을 쳐주는 장사가 널리 유행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소였다.

둘째, 율법주의의 위험이 있었다. 유대교에서는 먹어서는 안될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정하였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영지주의의 위험이 있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성육

신을 부정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욕을, 다른 일부는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크게 위협하는 이단이었다.

[설교]하나님의 히든카드(골 2:1-23)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으로 불릴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했던 골로새는 인근지역이 화산지대여서 위험도 따랐지만 비옥한 땅과 옷감생산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바울일행이 에베소에 머물며 선교할 당시에 에바브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골로새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전반부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1:15),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1:17),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부활하신 분'(1:18),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몸에 지닌 분'(2:9) 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1:20)로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학문인 철학으로써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후반부 3-4장에서는 땅엿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 것을 구하며, 성화와 사랑의 띠를 매며,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초등학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초등학문의 위협은 주로 천사숭배와 점성술에 있었습니다.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점성술숭배는 인간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점을 쳐주는 장사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둘째, 율법주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한 이단이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셋째, 영지주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육을, 다른 일부는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크게 위협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침투한 이들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든카드는 국면전환이나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준비한 전략인데, 상대방에게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도 히든카드가 있었고 또 그 카드를 사용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장 2-3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 곧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워두신 계획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이전 세대들에게는 감춰진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를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 타락이후 세계는 선과 악의 세력다툼의 결전장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택하시고 악의 세력에 눌려 흑암에 사는 이방민족들을 구원키위해서 선교사로 내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만에 빠져서 본연의 임무인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질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던 사람들까지도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

서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사역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민족마다 혹은 개인마다 제각기 자기 나름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였는데, 그 길이 한결같이 만족스런 결과를 줄 수 없는 미흡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만세전에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고 전세를 역전시킬 히든카드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 카드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모든 인간은 죄악성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주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의 계시 곧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대로라면 인간의 장래는 아주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구원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한 히든카드를 갖고 계셨고,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26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또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고, 영광의 풍성함이 될 수 있다고 골로새서 1장 26-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골로새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천사송배나 점성술과 같은 초등학문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한 율법주의와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방탕주의를 표방한 영지주의 또한 기독교를 크게 위협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2:2-3). 초대교회 때에 헬라인들은 그들이 참세계라고 생각했던 이데아 세계로 인도해줄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제국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히 10:20)이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구원의 길이 많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요, 밝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로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은 동굴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혀 정면의 벽만 바라보도록 족쇄에 묶인

인간은 배후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참된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실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그림자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가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그가 그림자의 원천, 즉 불의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또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족쇄 때문입니다. 이 족쇄를 풀어서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하고, 동굴 밖의 대자연의 밝은 세계를 보게 할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때 사단에 얽매어 죄의 소굴에 갇혀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이 풀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둔 동굴에서 나와 밝은 빛의 세계로 옮기었습니다. 이 해방, 이 빛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았던 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표적이나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려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 24).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으나 얻지 못했던 것, 헬라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구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헬라인들이 찾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그 안에는 충만한 신성이 육체로 거하

시기 때문입니다(2:9). 지혜와 지식에 의존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신성이 육체에 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신성이 육체에 거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곧 모든 권세와 권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2:10).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고(2:10),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성을 지닌 육체를 벗는 할례를 받았고(2:11), 우리가 세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부활하였고(2:12),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2:1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워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2:14), 권력과 권세들을 비무장시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2:15)고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긍정의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며(2:6)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으며 믿음에 굳게 서며 감사로 찬만하라고 권하였습니다(2:7). 부정의 측면에서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며(2:8), 그리스도인은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2:20).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축일과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2:16).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2:17). 또 겸손한 체하며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며(2:18), 이와 같은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2:21)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두신 비밀 곧 하나님의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의 길은 새롭고 산길입니다. 그의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땅엿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 것을 구하며, 성화와 사랑의 띠를 매며,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와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이 서신은 바울이 쓴 개인 편지로써는 유일한 것이며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브루기아 지방에 사는 빌레몬이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유복하고 독실한 기독교이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네시모는 ‘쓸모 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전에는 아무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진정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는 일은 중대한 범죄였다. 도망자는 붙잡아 도망자(fugitivus)란 단어의 첫자인 F자를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새긴 후 십자가에 처형했다. 당시에 노예는 말이나 노새와 동일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 이런 자를 바울은 사랑하였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고자 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써 영접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오네시모가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도 하였다. 우리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바울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한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와 참된 인격자로 받아드림으로써 노예해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둘째, 바울은 사회적 신분의 변동없이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되었으며,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인과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선포했다.

셋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쓸모없던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쓸모 있

는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다.

[설교]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몬 1:10-19)

기독교의 가르침은 흑암에 빛을, 혼돈에 질서를, 죽음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신약성서 곳곳에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쓰인 이 서신은 바울이 개인에게 쓴 유일한 편지로서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의 터키 중서부쪽 브루기아 지방에 사는 빌레몬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유복하고 독실한 기독교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는 일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도망자는 붙잡히면 도망자(fugitivus)란 단어의 첫자인 F자를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찍힌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말이나 노새와 동일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카토(Cato)란 사람은 농장경영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늙은 소는 팔아버

리고, 병든 짐승, 쓸모없는 양털과 가죽, 낡은 짐수레나 농기구들, 그리고 늙고 병든 노예는 없애버리도록 경영주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개는 전쟁 노예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 출생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은 내란으로 재산 손실을 입고서도 여전히 4,16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트리말키오란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노예만도 하루에 남자아이가 30명이고 여자아이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물건처럼 매매 되고 있었습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처럼 진열해 놓고 있었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거벗은 노예를 찢어 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보기도 하고, 주위를 걸어 보게 한 후에 값을 흥정해서 구매했습니다.

노예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잔인한 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길들인 메추라기를 우연히 죽게 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90년 경 사도 요한의 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노예를 화로에 태워 죽였습니다. 베디우스 폴리오는 수정으로 만든 잔을 떨어뜨려 깨뜨린 노예를 연못에 집어던져 칠성장어에게 산채로 뜯겨 죽게 했습니다. 먼지 한 점 묻은 것, 은 조각 하나 잘못 닦은 일, 파리를 쫓지 못한 일, 식탁을 바로 놓지 못한 일, 의자를 바로 놓지 못한 일,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재채기하거나 기침하거나 말 한마디 속삭인 일, 술시중이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 일 등으로 노예들은 채찍을 맞거나 매를 맞았습니다. 여주인들도 자기 하녀들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만져주지 못하면 손톱으로 하녀를 할퀴거나 채찍질했습니다. 주인이 살해되면 노예들도 처형당했습니다. 페디아누스 세쿤두스가 살해되었을 때에 처형된 노예가 무려 4백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예들에게 친절했던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믿었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노예들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플리니는 병든 노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보내기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친구의 농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예가 너무 늙기 전에 해방시켜 주기

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 몇몇 지식인들이 노예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친절이 동정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노예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취한 태도는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F자를 새기고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은 새롭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변화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예처럼 비참한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노예가 되며, 노예도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쓸모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아무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진정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복음의 일꾼으로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로써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써 영접해 줄 것

을 간청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손해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되돌려 보내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고 설명하면서, 16절에서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랴.”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노예 이상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흑암 같은 감옥에서 빛을 잃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오네시모에게 참빛을 찾아 주었습니다.

둘째, 기독교의 복음은 혼돈한 삶 속에서 방황하던 오네시모에게 안정된 삶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네시모는 죽음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생명 있는 형제의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사랑 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넷째,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위대한 감독으로 높은 신분의 상송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쓸모없던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주후 107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바울처럼 로마로 끌려가 화형(이그나티우스는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게 하는 처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함)에 처해졌는데, 잡혀가는 도중에 그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만한 자격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엡 1:1).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도망자 노예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속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섬김을 받은 교회이며, 요한이 말년에 섬긴 교회이기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함께 다섯 개의 최고 감독 교회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동서방 교회를 통틀어 다섯 명의 최고 감독직 가운데 한 석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기록은 실로 엄청난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천한 노예 도망자가 감독 중의 감독인 다섯 명의 총감독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위대한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변신들 중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변화된 위대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서 자체가 진리를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체험기란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 받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이제 66권으로 마감이 된지 이 천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 곳에 모인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든 작든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 또는 예수 믿고 성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이다.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을, 디도는 그레데섬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만이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들 목회자들에게 보내졌다.

이들 서신의 기록연대는 바울이 63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풀려 나와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로마의 맘머티메 토굴에 갇혀 있다가 네로에게 순교 당하기 직전인 6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교회는 주후 30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출범한 때부터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의 도전을 받아왔다. 따라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박해자를 향해서는 기독교의 무흠함을 변호하며,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을 전수하고 보수하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과 치리와 관리를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성직을 제도화시키며 신약성경 27권을 정경화 시켰다. 이런 작업의 초기과정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이다.

이들 서신의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 또는 자격; 둘째, 이단을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을 그대로 전수하고 보수하는 것이라는 믿음; 셋째, 기독교 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도방법은 비기독교 세계 속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책별로 보면, 디모데전서가 거짓 교사들과 교회질서의 문제를 다루었고, 디모데후서는 바른 교훈을 지키며, 가르치며, 거하며, 전파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는 교회행정에 관한 지시와 교회 각층에 대한 교훈과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교]민음의 선한 싸움(딤후 1:18-19, 6:11-12)

바울은 67년에 로마의 맘머티메 토굴감방에 갇혀 있다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본 서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교회를 맡아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교회는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박해로 고통을 겪었고; 둘째, 내부의 적인 이단의 도전 때문에 곤란을 겪었으며; 셋째,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질서문제, 치리문제, 예배문제 등으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성서가 기록된 것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권면하고, 박해자를 향해서는 기독교의 무흠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단에 직면해서는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및 예배전통을 전달코자 하였으며, 후대에 가서는 니케아신조와 같은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 이단사상의 유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글들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내부에 침투한 이단처리와 일군선임 등에 관해서 기록한 목회서신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두 차례나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싸움이란 것을 과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선한 싸움이란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싸움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간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상처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싸움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잘만 싸우면 싸우지 않은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싸움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요. 문제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싸움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싸움이 지나치거나 싸움이 전혀 없어도 인간사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생각을 잠시 빌린다면, 결국 싸움을 지혜롭게 잘 해야 인간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잘 싸우는 것일까요?

톨스토이의 민화들 가운데 「불은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작은 불일 때 꺼야 큰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버려두면 망가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미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일 때 큰 싸움으로 변지기 전에 진화를 해야 합니다.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수 언도를 받고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씨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싸움은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잘게 나뉘어서 미리미리 작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 파국을 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싸움은 잘만 관리하면 대화라는 틀 속에서 비폭력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책(上策)은 못되고 중책(中策)에 속합니다. 상책은 역시 '싸움에 잘 지는 것'입니다. 강물이 낮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르는 원리입니다. 쉽게 지면서도 어느덧 이겨버리는, 이른바 승패(勝敗)의 변증법을 터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기보다 어렵습니다. 지면서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우에 어긋나지 않고 떳떳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단들과의 싸움을 말한 것입니다만, 이단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싸움에 지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요, 싸움에 이긴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잃게 되면 결국 싸움에 진 것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남지 않게 싸울 수는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싸움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간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상처

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만, 싸우는 양자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면,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소망 중에 싸운다면, 그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위한 십계」에도 보면, “첫째, 승리자가 되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승리자 곁에는 패배자만 남게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되, “주장하기보다는 느끼게 하고, 설득시키기보다는 공감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상처 없는 싸움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또 6장 11-12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할 때, 상처 없는 싸움이 가능하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에 얽힌 싸움은 반드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권면하신 방법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싸움의 방식을 권해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의 싸움을 권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은 싸우는 방식을 신뢰와 신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신실함에서 나오고, 신실함은 신뢰에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신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신실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신실함은 하나입니다. 이런 신뢰와 신실함이 쌓여있는 사람끼리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 5절의 말씀대로 “청결한 마

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밑바닥에 깔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둘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1:18)고 하셨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것은 진리를 사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단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1:3, 6:3)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하였고, 이밖에도 "교훈," "바른 교훈"과 "선한 교훈"이란 표현을 여덟 번 사용하였습니다(1:10-11, 4:6, 6:1). 바울은 또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진리"라는 표현을 다섯 번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1:4),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케 하라(6:3)고 하였으며,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4:7)고 하였습니다. 또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4:13)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셋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1:19)고 권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밖에도 "선한 양심"(1:5)과 "깨끗한 양심"(3:9)이란 표현도 쓰셨습니다. 양심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길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인간이 소속한 사회집단의 문화, 종교, 도덕, 윤리, 관습에 의해서 길들어지고 교양되어집니다. 따라서 양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옳거나 바른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한 슈퍼에고(superego)에 해당됩니다. 슈퍼에고는 마치 달리는 말에 부착한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본능대로 날뛰려 하는 말을 이드(id)라고 한다면, 말을 탄 기수는 에고(e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날뛰는 말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면 그 재갈이 바로 슈퍼에고 또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수가 말을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재갈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재갈을 물렸다고 해서 말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지나치게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고 사용해야할 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재갈과 브레이크의 사용, 이것을 선한 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갈과 브레이크가 달린 싸움, 이런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닐까요? 「부부싸움을 잘하기 위한 십계」를 보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라. 타임아웃을 지키라. 무대를 친절까지 확대하지 말라. 인격 모독을 피하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향을 지르지 말라.”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절제된 싸움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하는 싸움일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고, 이 “선하다”는 표현을 디모데전서에서 16번 이상 사용했습니다(1:5,8; 1:18-19; 2:3,10; 3:1,7; 4:4,6; 5:10,25; 6:11-13,18).

바울은, 넷째, “경건”이란 말을 디모데전서에서 아홉 차례나 썼습니다(1:9; 2:2; 3:16; 4:7-8; 6:3-11). 바울은 4장 7-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였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6장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합니다. 경건함이 없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 될 수 없고,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단독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던 라인홀트 메스너는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에서 친동생을 잃는 등 수많은 동료가 산에서 추락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메스너는 죽은 이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에 가졌던 진지함과 경건함이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에 잃기 쉽고, 결국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8천 미터 이상 되는 열 네 개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한국 등반대원들 가운데 77년 9월 15일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산을 등정한 고상돈 대원이 79년

알래스카의 매킨리(6,194m) 봉에 등정한 후 하산 길에 추락사했고, 95년에 빙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가 브로드(8,047m) 봉에 등정한 후 하산 길에 박현재 대원이 추락사했고, 동국대 산악부원 및 산악부원 출신 8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길에 안진섭 대원이 추락사했습니다. 금년(2004) 5월 18일에도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1차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하던 중에 해발 8700미터 부근에서 박무택 대원이 숨졌고, 구조하기 위해 갔던 백준호 대원과 장민 대원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이 없는 싸움은 죽음의 계곡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놓아두면 끄지 못합니다.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이기고서도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패배자가 없이 승자만 남게 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됐든, 직장 동료와의 싸움이 됐든, 이단자들과의 싸움이 됐든 그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디모데의 참 스승 바울(딤후 1:1-14)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 상가에서 발화된 불이 때 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9일 동안 전체 로마시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잿더미로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항간에는 네로가 방화범이란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화살을 피할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워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짐

승 가족을 뒤집어 쓴 채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괴수로 지목받았고, 긴급 체포되어 로마의 지하감방(Mamertine Prison)에 갇혀 있다가 네로가 자살하기 일년 전인 67년경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지하감방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늙고 병든 상태에서 견디기 어려운 지하감방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이런 저런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을 어떻게 참스승이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1:2), 밤낮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 중에 디모데를 기억하였으며(1:3), 디모데의 눈물을 알아주었을 뿐 아니라,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으며(1:4),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을 알아준 참스승이었습니다(1:5). 참스승으로써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과 위로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1장 7-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1장 13-14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헬라과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다가 구사일생한 터키 남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 출신이며, 모친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고,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행 16:1).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약성경을 배웠으며(딤후 1:5; 3:15), 고향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던 청년이었습니다(행 16:2).

바울은 디모데를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동행시켰으며,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롬 16:21),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고전 4:17, 딤후 1:2), “형제”(고후 1:1, 골 1:1, 몬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빌 1:1), “하나님의 일꾼”(살전 3:2),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고전 16:10)로 불렀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빌 2:22)고 칭찬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칠 만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글을 보면, 디모데는 복음의 일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13:23).

그러나 디모데는 여타의 사람들처럼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럼을 잘 타고 소심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다가 속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고, 훗날 에베소교회에서는 거짓교사들을 제대로 막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아낌없는 사랑과 위로와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결심만 하고 머뭇거리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칭찬과 위로와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 위대한 디모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과 위로와 사랑의 충고가 인간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에 4강에 들게 된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독 히딩크의 과학적 훈련과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고,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도 있었으며, 개최지의 이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크게 작용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온 국민들의 대대적인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응원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칭찬’과 잘못할 때에도 잘할 수 있다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강 신화는 칭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Whale Done!)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잘못된 일보다는 잘한 일,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범고래들한테서 어떻게 그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시에 씨 월드(Sea World) 해양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범고래의 쇼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범고래는 가장 무시무시한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고래의 위속에서 물고기, 오징어, 물개,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북극곰, 펭귄, 파충류, 바다거북, 고래류, 해달 등 심지어는 무스(큰 사슴)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3톤이 넘는 이 거대한 범고래들이 수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점프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멋진 묘기들을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범고래들의 멋진 쇼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조련사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잘한 일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조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련사와 고래와의 신뢰관계입니다. 고래와의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범고래를 훈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든 사람과 사람관계든 사람과 고래와의 관계든 먼저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래포트' (rapport)라고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성서는 관계개선에 관한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관계가 개선되면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인간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인간과의 관계가 나쁠 수 없고,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인간과의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관계의 바탕은 신뢰와 신실입니다. 홍길동이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란 믿음, 홍길동이는 믿을 수 있다는 믿음, 홍길동이는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홍길동이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이런 믿음이 쌓일 때 경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한 일은 못 본척하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나 공부를 잘 했을 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일을 잘 못했거나 공부를 못했을 때 가급적 무관심하고 못 본척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잘한 일에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못 본척합니다. 더 나쁜 것은 시기하고 질투까지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온통 관심을 집중시켜 꾸중하거나 책망합니다. 잘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 행동이 일을 그르치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거나 잘못했을 때 꾸중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실패나 잘못을 만드는 에너지를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로 역할을 바꿔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 가운데 쌍둥이 자녀를 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부모들이 하는 행동과는 달리 아이들이 웃고 있거나 잘 놀고 있을 때만 함께 놀아주었고, 아이들이 울 때는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만 확인하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면 안아주고 놀아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커서 버릇없이 굴 때는 그냥 못 본척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과 관심을 다른 옳은 일로 바꿔주었는데, 외식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함께 본다든지, 공원에 가서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했다고 합니다. 잘못 된 일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잘하고 있

을 때 주의를 기울여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자랐을 때에는 집안 일을 돕거나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학교에서의 일이나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의 일을 정해 주었고, 그 일들을 잘 못했거나 안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했던 목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은 일을 잘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최대의 적입니다.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버려두면 망가지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심을 쏟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밝고 훌륭하고 멋진 부분에 관심을 쏟느냐, 아니면, 잘못된 일에 관심을 쏟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잘한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못한 일에는 가급적 무관심하거나 못 본척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월말에 “그리스도의 나라”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비교가 없고 비판이 없고, 칭찬과 격려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비판과 책망이 난무한 곳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톨스토이는 「대자」란 글에서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으로 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이든 공부든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치기 전까지 가만 놔뒀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일을 망치기 전에 일이 그릇되기 전에 관심을 집중시켜 일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려두면 망가진다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

나 칭찬을 몰아서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즉각적으로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뒤통수를 치는 방식의 부정적인 반응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을 관심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칭찬하는 것이 가장 효과 좋은 약입니다. 잘하는 일을 찾아서 인정해 주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설사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잘한 일을 찾아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옳은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일을 잘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을 잘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율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칭찬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긍정적이고 신뢰가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찬이 지나치면 자만심으로 발전하지만, 적당한 자긍심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좋은 약이 됩니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들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정치 마당입니다. 비교는 죄악입니다. 내부경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이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칭찬은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딤후 2:1-15)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는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대신해서 선교교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설명으로 볼 때, 디도의 등장은 주후 51년경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총회 때로 볼 수 있습니다(갈 2:1-5, 행 15:1-2).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지 대략 20년이 흐른 때에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 사이에 불거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리 문제였습니다. 안디옥교회를 대표한 바울과 바나바는 외국태생의 유대인들로서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교회를 세운 사람들로서 기독교복음의 세계화, 탈국경화, 또는 탈민족화를 추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핵심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태생의 유대인들로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형제와 제자들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갖지 못한 결정권이나 승인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틀에 가둬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행 15:1)와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15:5)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갈 4:10)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하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다”(갈 5:6)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특징을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평등하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복음에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고, 혈통과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의 종교적 신념인 할례와 절기 지키는 일을 타민족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학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문명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면, 곧바로 문명인이 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IQ테스트에서도 미개한 종족이 문명이 깬 종족보다 더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우월성은 타고난 것이기보다는 높은 도덕수준을 자랑하는 그들의 야훼신앙과 오랜 고통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일신 사상에 기독교복음의 특징인 자유해방과 평등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복음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신성도 우상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유일신 사상에 기초를 둔 기독교복음의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위한 투쟁이 바로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

회에서 이뤄진 일들이고, 성령님의 강한 개입과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안디옥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좋은 결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귀중한 사실을 목도한 디도는 이후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로서(고후 8:23), 제자로서, 참 아들로써(딤후 1:4) 평생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디도의 이름이 고린도후서에서만 아홉 차례나 언급되었습니다(고후 2:13; 7:6,13; 8:6,16,23; 12:18).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인 66년경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지침서나 다름없는 훌륭한 글입니다.

그러면 디도서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디도서는 그레데교회를 돌보는 디도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세상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입니다만, 2장 11-14절과 3장 4-7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협동적인 구원사역이 훌륭하게 요약되고 있어서 사도성이 매우 높은 서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란 단어는 “가르치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며”는 칭찬하고 위로하여 용기를 심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며”는 꾸중하라는 뜻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기억하게 하라”(3:1), “바르게 잡으라”(1:5), “장로들을 세우라”(1:5)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건전한 교리에 부합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고, 2장 7절에서는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디도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권위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권위가 서지 못한다면, 가르치며, 권면하며, 책망하는 일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의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표준새번역성경』 2장 7절의 말씀,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와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들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를 세우라고한 점입니다. 권위를 세우라고한 말은 디도 자신의 능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뜻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며,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여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일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만이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갖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긍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 9:23)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예문사에서 출판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본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인데, “변화는 우리 모두의 업무다”란 뜻입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만 하고 변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린 바보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예 결심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나마 결심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과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스스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기 자신에게 가치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영향력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는 특별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팻 맥라건(Pat McLagan)은 말하기를, “긍정적인 피드백인 감사는 엄청난 증폭효과를 갖습니다. 뭔가 잘 안된다고 별을 주기보다는 잘 진행되는 일에 감사하고 칭찬하면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별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고 극적인 많은 변화들은 사실 뭔가 새로운 것을 누군가 지지하고 감사한다고 여길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팻 맥라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윤희기 옮김(예문사, 2002, 150-151쪽)]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낙관입니다. 팻 맥라건은 “희망과 낙관은 변화를 자극하고 끌어들이고 확대하는 힘입니다. 희망과 낙관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인간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실제로 모든 올림픽 선수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 끔찍한 사고나 죽음의 질병에서 살아남은 많은 생존자들은 거의 전부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삶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 . 그들은 늘 웃으며,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승리를 거두든 패배를 당하든 그들의 삶은 희망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성공에 어떻게든 큰 도움을 주

는 사람들입니다”(『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152-153쪽)라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336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대표하는 왕들이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모여 군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20세에 불과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뽑혔습니다.

알렉산더의 원정군은, 역사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3만 5천명의 보병과, 3천 5백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변변치 못한 군자금을 가지고 원정길에 나서면서 군자금에 보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참모의 가족들에게 고루 나눠주어 버렸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귀족 출신의 참모 페르디카스(Perdiccas)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 하께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소이다." "그렇다면 저도 재산대신에 그 희망이라는 것을 좀 나눠 받겠습니까." 페르디카스는 왕이 하사한 재산을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페르디카스가 반납한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나눠주고는 다시 손을 털었습니다. 후일 페르디카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대헬라제국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눠 받은 희망의 열매가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은 한 상자의 돈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더와 페르디카스는 눈에 보이는 작은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보다 큰 성공에다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겨 수천 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 나이 불과 20세의 청년으로써 내로라하는 대장군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것, 그의 그런 권위는 다름 아닌 그가 품었던 큰 희망과 낙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을 실천하여 본을 보일 때, 잘못된 일보다는 잘한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또 실패했거나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희망과 낙관

속에서 실패나 잘못을 만드는 에너지를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로 역할을 바꿔줄 수 있을 때, 이런 때가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큰소리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궁예 왕처럼 철퇴를 휘두른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는 감사와 칭찬과 희망과 낙관 속에서 세워집니다. 권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권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 공동서신의 뜻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는 명칭은 바울의 편지들과 같이 독자가 어느 특정 교회나 개인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독자나 또는 어느 교회나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요한 삼서만이 특정한 독자에게 쓴 순수한 편지이고 나머지는 전체 교회,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개 편지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다.

2.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차이

‘공동서신’의 명칭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따랐다. 히브리서가 수신자, 곧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따서 호칭된 것은 아마도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의 하나라는 전승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동서신의 본문은 요한 이서와 요한 삼서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교리와 설교식 권면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적 언급이나 요구나 명령은 없다. 바울서신에서는 신학적 교리와 권면이 분리되는데, 공동서신에서는 교리와 권면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신약성서의 책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제외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그 순서가 크기순서로 되어 있다. 신약성서의 순서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레코로만 전기방식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신약성서의 책들 가운데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글들이란 것이다. 따라서 공동서신은 그 정확한 기록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바울서신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바울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관복음서처럼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그런 케이스이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자료로 사

용하여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동서신이 바울서신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첫째, 공동서신의 내용이 바울서신의 내용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띤다.

둘째,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이 정경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

셋째,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유대교와의 문제나 교리적인 논쟁들이 공동서신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로써 성장과 함께 찾아온 물리적인 박해, 이단들의 도전, 신행일치, 교회질서를 위한 조직정비, 윤리문제들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음을 본다.

넷째, 교회성장과 재림지연으로 인한 신학정립과 교회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공동서신들이 기록되던 시기에 교회들이 직면한 과제들이었다.

다섯째, 바울선교 초기에 나타났던 교회의 특수성이 공동서신에서는 보편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직면해서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여 편지로 마치면서 독특한 기독교 해석으로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순종의 믿음 즉 실천과 행함의 믿음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방탕한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에 대하여 격분하고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요한 서신들도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가르친다. 요한일서가 사랑의 서신이라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를 다룬 서신이며, 요한삼서는 목회자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서신이다.

3. 히브리서의 구조와 특징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대다수가 바울이 저자라고 믿었고, P46사본에는 로마서 다음에

배치되었다. 220년경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안은 바나바가 저자일 것으로 생각했다. 바나바는 히브리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성전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잘 아는 레위인 출신이었다. 21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누가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했다. 히브리서의 헬라이어 용법이 사도행전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대 신학자 하르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저자라고 생각했다.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 글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아볼로가 저자라고 생각했다. 아볼로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그는 구약성서에 박식했고, 언변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서는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유대교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기독교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이다.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선포와 교훈이 네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실제로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진 완전한 모습의 불완전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의 세계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실제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본 사상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며 중보자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내용의 개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생각한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의 의식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제도와 많은 부분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죄사함을 위한 희생물, 참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모형이자 또한 상징이었다.

내용의 개요

보다 뛰어나신 분 1:1-7:28	보다 뛰어난 제도들 8:1-10:18	보다 뛰어난 생명 10:19-13:25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같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행하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1:1-2:4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성소 8:1-9:12	·나아가자 믿음의 담력: 10:19-39
구세주 예수 2:5-18		·믿자 믿음의 모범: 11:1-12:2
안식을 주시는 예수 3:1-4:13		·인내하자 믿음의 인내: 12:3-29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4:14-5:10	·더 좋은 희생물 9:13-10:18	·사랑하자 믿음의 사역: 13:1-19
경고들 5:11-6:20		·결어: 10:19-13:25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7장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제도의 비교

	옛 언약	새 언약
1. 대제사장의 자질	레위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5:3;7:27). 무식하고 미혹하고 언약에 싸여 있다(5:2-3).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7:28; 4:15).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늘위에 높이 계신 분(7:26).
2. 장막	손으로 지은 장막(9:24).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9:23).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더 크고 온전한 장막(9:11). 하늘에 있는 성소(9:24). 하늘에 있는 실체(9:23).
3. 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9:12,13; 10:4).	자기의 피(9:12).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심. 한 제물(10:14).
4. 성격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법에 따라(7:12).	자의로(10:9).
5. 횃수	해마다(9:25; 10:3). 매일(10:11).	단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9:14; 10:2,10; 9:12,25-26). 영원한 제사(10:11-12).
6. 효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10:4).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10:3).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2:10; 5:9; 7:28).	죄를 없애고(9:26,28) 깨끗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10:14). 그리스도 자신이 온전한 분이시므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10:24; 11:40; 12:23).
7. 기한	납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새 것으로 개혁될 때까지(8:13; 9:10).	예수는 영원한 계시이므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함(7:24). 영원한 제사(19:12).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9:26). 종말의 사건
8. 성취	옛 언약이 성취하지 못한 것임(9:18; 8:7,13).	새 언약의 중보(9:15).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심(9:15).

2) 모형론(Typology)

영원한 천상의 세계와 일시적인 지상세계로 되어 있는 수직적 이원론과 현세와 내세로 된 종말론적 이원론이 히브리서에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수직 또는 공간적 이원론은 참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라는 플라톤 사상이 반영된 것이며,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학사상의 핵심이다. 신약성서의 대표적인 해석인 모형론(또는 유형론, typology)이 여기서 나온다. 먼저 있는 것은 나중 있을 더 좋은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나중 있을 것은 먼저 있는 것의 원형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구약의 것들은 신약의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것들은 구약의 것들의 원형이요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성서해석방법'이라 일컫는다.

3)기독론(Christology)

히브리서 저자가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의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1:2,5; 4:14; 5:5,6; 7:3).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은 신성과 선재성 그리고 우월성이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메시아 칭호인 '그리스도'를 9번, 사람의 칭호인 '예수'를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사용하였다. 이 호칭들의 특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우월성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명확하게 강조하였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12:2)와 휘장 안에 앞서 가신 자(6:19)로 묘사하였다.

4)큰 대 제사장(The Great High Priest)

히브리서의 또 다른 기독론의 핵심 주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 제사장직이다(5:6). 멜기세덱의 반차(order)는 영원하며(timeless), 왕이며(royal), 변치 않는다(changeless). 그러나 아론의 대를 잇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제도는 장차 나타날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써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큰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단 번에 드리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없이 하셨으며(9:26), 백성들을 죄로부터 온전하게 구속하셨다(2:17).

5) 새 언약(New Covenant)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여기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3-34절에서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한 말씀에 근거를 둔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만들어진 새 언약에 적용시키고 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개된 새 질서를 구약의 지나간 질서와 대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옛 것이 아닌 참된 장막 가운데서 섬기신다. 왜냐하면, 옛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8: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8:6). 왜냐하면,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8:7). 이 말씀들은 결점 있는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8:8). 즉 하나님께서 옛 질서 아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8-12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가능하게 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4. 히브리서의 기록목적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와 히브리서의 집필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배신과 배도와 배교의 위협이었다. 그들에게 불어 닥친 유혹과 시험과 위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박해였다. 박해로 인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12:12)이 될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히브리서 공동체는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는 대항하지”(12:4, 13:7) 않았으나 “고난의 큰 싸움”을 이미 겪었고, 더 큰 어려움도 예견하고 있었다(12:3-13, 13:3).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비방을 받고 있고,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감옥에 투옥되었고, 친인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으며, 고향을 등졌고, 나그네로 유리하였으며, 산업까지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손은 풀리고 무릎은 떨게 되었으며, 크게 낙심하였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그들을 배신과 배도와 배교로 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에 처한 신앙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시험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존귀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4:7)고 하였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훼방과 능욕과 고문을 당하고, 감금되고, 배척당하여 방황하는 교우들을 맞아들이고, 감옥을 찾아가고, 이제는 손이 풀리고 무릎이 떨리는 위기를 당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상속받고, 하늘의 안식을 얻는 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약속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참 약속을 믿고 환난을 견디라고 권면하였다.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25)

1998년 11월에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가 저술한 『제3의 길』이란 책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이후로 ‘제3의 길’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앤소니 기든스는 영국 언론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사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든스는 토니 블레어가 주창하는 ‘제3의 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든스는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갱신』이란 책도 출간하였습니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념을 뛰어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정치 사회적 전망을 제시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좌우를 포용한 제3의 길을 가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길이 아니라, 이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뛰어넘는 새로운 중도좌파의 길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도 앤소니 기든스처럼 『제3의 길』을 제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린도서를 쓴 바울과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제3의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의 말처럼 실제로 당대의 유대인들은 열심히 표적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메시아인가는 그가 행하는 하늘로부터 내린 표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메시아의 등장만이 유대인들은 이상국가(理想國家)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던 이유는 그

들이 이데아라 불렀던 참실재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줄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표적과 지식의 결합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상국가를 세울 수 있고, 참 실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제3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다수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인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이상국가로 인도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을 참 실재의 세계로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며, 그것이 비록 멸망 받을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많은 종교나 철학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요, 산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철학의 지식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참 길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를 얻지 못했고, 찾던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이 보고자 했던 참 실재에로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은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율법의 길도 아니요, 헬라인들이 찾았던 철학의 길도 아니란 것입니다. 인류에게 “새롭고 산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본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

서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월등히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이시며 중보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들이 이뤄질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뤄질 증거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새롭고 산길"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밝혀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60-9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나서도 유대교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또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제3의 길'인지, 바울의 표현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이신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7:25)고 하였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선포와 교훈이 네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문체로 쓰인 글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는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빈번한 비교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비교를 모형론 또는 유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형론은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님과 복음의 내용을 실체로 보고, 그 먼저 나타난 모세와 율법을 모형 또는 그림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놓았듯이, 먼저 나타난 것, 그래서 먼저 본 것은 나중에 나타날 좋은 일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10:1). 그러므로 먼저 나타난 모세와 율법은 나중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인 나중 것, 즉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는 실체인 기독교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실체가 바울에 의하면 이전 세대들의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1장에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없이하시며, 백성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며,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며,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구세주로 소개하였습니다. 3-4장에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5장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6장의 경고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성숙함에 이르자고 하면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제사장 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8-10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유의 모형론을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옛 언약시대의 장막보다 더 뛰어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과 더 나은 제사의 큰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길”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견디자, 믿음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소망 중에 인내로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축복의 반열에 든 신앙선배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한 또 다른 내용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고,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10장 29절에서는 배교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10장 32절에서는 이전에 큰 고난을 당하고도 잘 참고이긴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고, 또 13장 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배교직전에 놓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형론이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조효과가 뛰어난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조효과란 다 쓰러져 가는 몇몇 초라한 집을 먼저 보여 주고 난 후에 정상적인 집을 보여 주면, 잠재고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집을 훨씬 더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다든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일은 월등히 높은 위치에서 대조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심을 키울 수 있고, 얻어지는 효과도 크지만, 그 반대로 등급이 낮은 위치에서 월등한 것과 대조를 하거나 비교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보디가드」란 영화의 후반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배우 케빈 코스트너 (Kevin Costner)가 가수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의 경호원으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열연한 대중가수 레이첼을 죽이려 한 사람 때문에 케빈 코스트너가 프랭크란 이름의 경호원으로 열연을 했는데요, 레이첼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레이첼의 언니였습니다. 레이첼의 언니도 동생처럼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유명해지면서 동생의 어린 아들을 돌보는 보모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레이첼의 언니가 동생을 살해하려고 고용한 사람인데요, 정작 살해를 부탁한 언니는 그가 누군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부살인자는 레이첼의 경호원인 프랭크와 함께 대통령의 경호를 함께 맡았던 전직동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레이첼의 청부살인을 맡게 된 이유는 레이첼을 광적으로 좋아한 팬이었거나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이전 동료였던 프랭크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맡았던 의뢰인을 죽임으로써 책임감이 워낙 강한 프랭크를 침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이첼의 경호원 프랭크는 대통령이 암살되던 때에 비번이었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암살에 대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경호원직을 그만둘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이첼과 그의 어린 아들이 암살위협에 떨게 된 것은 레이첼의 대중적인 인기를 자신의 처지에 비교하면서 남몰래 질투했던 언니의 뼈뿔어진 비교 때문이었으며, 책임감과 실력이 남달리 뛰어난 프랭크를 경쟁상대로 보았던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뼈뿔어진 비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경호원 프랭크가 온 몸으로 총탄을 맞으며 의뢰인의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비뿔어진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점과 일단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경호원의 사명감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경호원 프랭크처럼 우리 인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온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표절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단은 프랭크의 전직 동료처럼 예수님을 질투하여 인류를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몸을 던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죽어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

이 그분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게 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셨으며, 대중가수 레이첼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과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등 뒤에 두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 우리들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그분을 바라보며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 210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일이삼서가 이어진다. 이들 일곱 개의 서신을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수신자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 두 지파”로 되어 있다. 이 호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야고보서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종교 즉 행함의 신앙을 강조한 글이다. 바울이 일부 서신에서 강조한 ‘칭의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 즉 초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면, 야고보가 그의 글에서 강조한 ‘행함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 또는 ‘순종의 믿음’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바울도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 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설교]행함이 없는 믿음(약 2:14-26)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 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글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칭의의 믿음’은 구원을 받기위한 믿음으로써 죄인에게 요구되는 믿

음이고,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과 성화를 위한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바울도 서신서들에서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였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파 목사인 박옥수는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로 접근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통교회들에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신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의 몸의 변형이 있기까지는 구원을 받았다하더라도, 구원은 약속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에 크든 작든 지배를 받게 되는 성품과 인격은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파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박옥수는 의지적인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피동적으로 깨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선행이나 성화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달콤함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구원파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인 54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절 가운데 한절이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4장 7-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장 25절에서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고,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1장 26절에서는 자기 혀를 재갈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3장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4·5절에서는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종하듯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세치 혀는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6·8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치 혀의 놀림이 형제나 자매에게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망 중에 인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으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7·8절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였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로 행하지 않고도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살림의 일을 예수님이 본받아 하였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죽임의 일을 일삼던 우리가 변화되어 살림의 일을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변화란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란 바로 이 살림의 일, 재창조의 일, 건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임의 생각, 죽임의 말, 죽임의 행동은 사단의 일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도대체 행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림의 일이 없는 믿음, 삶 속에 변화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소홀히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안했습니까? 십일조를 제대로 안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눅 18:12), 613개

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39개의 더욱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 이상 경건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종교인이 없을 듯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요 7:19)고 하셨고, “외식하는”(마 23:23) 자들이라 하셨으며,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마 5:20). 그들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마 3:7)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독설을 받아야했습니까?

첫째,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버렸기 때문입니다(마 23:23).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소망 중에 인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살림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언제나 죽임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막 7:8)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막 7:13)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막 7:7).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마 23:27)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자랑하는 지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먼 장님이란 사실을 몰랐고, 그들은 자신들이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무식했다라면 좋았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잘났다고 빠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넷째,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변화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탄압함으로써 결국 수난의 민족으로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살림의 일과 창조적인 일, 그리고 긍정의 변화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자아를 이상화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성경에 폭로된 유대인의 과오이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시리아 문명의 요람기에 시작하여 예언자 시대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은 일신교의 종교사상에 도달함으로써, 그 주위에 사는 시리아 사회의 다른 민족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적 보물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으나, 그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계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을 이상화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지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절반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유일한 참신'을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신의 선민임을 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절반진리는, 그들이 가까스로 도달한 일시적인 정신적 탁월성을 신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성스런 약속으로써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천부의 재능을 어리석게도 땅에 숨겨둠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신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1549년 7월에 일본 큐우슈우(九州)에 상륙한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일본은 1854년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은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 서양 제국과 차례로 통상조약을 맺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도 당나라 때에 이미 한차례 기독교(景敎)를 수용한 경험이 있고, 또 1583년 9월, 중국 광둥성에 도착한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유럽의 발전된 과학학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동서양학문이 결합된 변증법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유럽의 각종 문물과 번역서들이 해마다 북경에 파견되는 사절들에 의해서 유입되었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들을 접하고도 배척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인들을 '사학죄인'으로 몰아 1만여 명이나 죽였는가하면, 쇄국정책을 펼쳐 서양학문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였고, 실학자들을 정치적으로 크게 탄압하였습니다.

이 당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양반세력들은 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신에 위기의식을 느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昞應)은 청(淸)나라를 제외한 다른 외국과의 통상 및 교류를 꺼려 강경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근세 들어 겪게 되는 엄청난 외세에 대응할 만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는 불행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쇠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변화가 일고 있는지, 행함은 있는지, 과연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소망 중에 인내로 행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 218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박해시대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받은 초기 박해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와 트라얀 황제 때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지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실루아노가 대필한 베드로의 서신으로 주장되고 있어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이 보내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당시에 공개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에 직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나 언제나 그랬듯이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있었으리라 본다.

베드로전서는 두 개의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이다. 이것은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신앙의 결단과 감격을 되살려 주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설교이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설교이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산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설교]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벤티전 4:1-11)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언급한 서신입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받은 초기 박해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에 국한 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는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기독교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실루아노가 대필한 베드로의 서신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는 이 서신이 보내어진 터키지역에는 주목할만한 공개적인 박해가 없었습니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터키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에 직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해 뒤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로마당국이 개입된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동족이나 친인척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죄와 불신자와의 관계청산을 당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 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고 침례까지 받았으니,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잘못들을 낱알이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자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개의 설교로 나뉘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신앙적 결단과 감격을 되살려 주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도의 신분, 성도와 목자, 성도의 믿음, 성도의 구원, 성도의 삶, 성도의 고난 그리고 성도의 침례에 관한 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설명하는 위의 주제들에 대해서 차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성도의 신분은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2:9)이며, “하나님의 백성”(2:10)입니다. 성도는 흠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과 거둬냄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나라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을 자들이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1:1-5). 또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입니다(4:10).

(2)성도의 목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2:21-25).

(3)성도의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데, 불에 단련되어 나온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1:7), 최종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1:9).

(4)성도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관심을 보였던 것이지만, 그들은 받아 누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밝혀진 신비입니다(1:10-12).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른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1:18-19),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1:23).

(5)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삶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스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며(1:1-8), 흑암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2:9).

(6)성도의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표였던 것입니다(3:20-21).

(7)첫 번째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하였고(1:13), “사욕을 본받지 말고”(1:14),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1:15),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1:17),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1:22)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2:1-2)고 하였으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2:4-18, 3:1-12)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당부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권면과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부탁한 말씀입니다.

(1)성도의 고난은 용광로의 불처럼 단련하는 불길이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시련의 불길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4:12-19).

(2)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부탁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으로써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5:1-4).

(3)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과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5:5-10).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입니다. 성도의 성격과 믿음의 가치를 확고하게 말씀해 주면서 고난을 잘 참고이길 것과 성도답게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고,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배도하지 않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38절은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악형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롱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과 염소 가죽을 쓰고 맹수에 찢기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숨어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잔학한 박해를 당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교하면 준다고 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습니다. 다른 형벌은 잘 이기고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광암리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에 있었던 속칭 고산 널바위에 살았던 김성철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 6명과 마을사람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여산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나이 62세 때에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옷 속에 있는 숨을 뽑아 먹다가 풀밭인 처형지로 끌려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둘째, 귀양살이였습니다.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는 노비로 삼으며, 시집가기로 약속된 여자는 친정으로 보냈고, 그 밖의 식솔들은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육시형을 받았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은 동생 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항검의 처 신희는 함경도 경원부로, 여섯 살 난 아들 일석은 흑석도로, 세 살 난 일문은 강진 신지도로, 그리고 아홉 살 난 딸 섬이는 거제도, 며느리 이순이는 평안도 벽동으로, 조카 중성은 함경도 회령으로,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평안도 위안으로 각각 보내져 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고문이였습니다. 교인들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매질이었습니다. 해미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채를 묶어 나무(회화나무)에 매달아 매질하고, 활을 쏘았고, 커다란 돌다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다리를 들어 돌에 메치어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부서지도록 자리갯질을 했습니다.

원주감영에서 순교한 최해성은 어찌나 맛았던지, 다리뼈가 부서져 뺏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고, 등과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가 빠져 나왔습니다.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수기를 낸 신태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였는데,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문에 있어서 주리를 트는 것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은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가 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인 「상재상서」를 트집 잡는 관헌들에게 몽둥이 끝으로 찢리고 톱질을 당한 끝에 뼈가 드러나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합덕 사람 손자선은 공주감영에서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인분까지 덮어쓰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때리다가 지쳐 “무엇이 고마우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목이 말라 가래침을 잡수시며 돌아가셨거늘,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하여 주니, 이제야말로 내 죄를 보속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네 이빨로 네 살을 물어뜯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놓아 주겠다”는 꼬임에도 “만 번을 죽어도 배교는 못하겠다.”면서 양팔을 한 입씩 물어뜯어 기절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넷째,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양쪽 귓바퀴에 화살이 꽂히고, 얼굴에 물을 뿌린 후에 횃가루를 발린 채로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교수형으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발라 질식사키는 가혹한 도모지 방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주천변에 있는 초록바위터에서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흥낙민의 손자 흥봉주의 아들이 15세 때에 수장되었습니다.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는 전라감사로부터 “너마저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은 천지의 대군주이시고 대부모이신데 어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유향검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시형을 당했습니다. 육시형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으로서, 죄인을 일단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여섯 토막을 내어 전국 각지로 보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황사영은 백서사건으로 체포되어 나이 27세 때에 사지를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해미 여섯골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가 하나같이 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홍주관아에서 원시장은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에 결박된 채로 물세례를 흠뻑 받고 성밖에서 내버려져 얼어 죽었습니다.

충청북도 연풍에서는 원추형 돌구멍에 밧줄 올가미를 만들어 넣어 기독교인의 머리를 반대쪽에서 잡아당겨 머리가 돌구멍에 끼여 죽게 하였습니다.

1866년 보령 갈매곶에서 참수를 당한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젓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썽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 씩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 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가서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기독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 백리 산길을 남몰래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을 참고 인내

하며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목숨보다 그토록 더 소중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선배들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후배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228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변화산의 예수를 목격한 자로,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낸다고 말함으로써 본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졌다.

베드로는 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했다면,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요, 둘째는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욕을, 다른 일부는 방탕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도 바로 이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성장을, 2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3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다.

[설교]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벧후 1:1-11)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변화산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낸다고 말함으로써 본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1장 14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와도 같은 글입니다.

베드로는 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했다면,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요, 둘째는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들에 가장 위협적인 박해세력은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이었고, 가장 위협적인 이단세력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40-50년간의 기독교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 이후 기독교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부터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네로 때 로마시 대화재 사건을 시점으로 국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할레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필수라는 주장이었고, 영지주의는 물질 곧 세상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다른 부류는 방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은 2장 2절과 18절에 나타난 대로 방탕주의를 표방할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부정한 영지주의였습니다.

100년경에 기록된 책 가운데 『디다케』, 곧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이후의 글일 뿐 아니라, 책 제목과는 달리 사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빠진 내용들, 즉 초대교회 당시의 상

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신약성경이 집필되던 초대교회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디다케』가 기록되던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는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는 떠돌이 순회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한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의 교회들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권위자들이 초기에 세운 장로들이 있었고, 이후 회중이 선출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고, 집사는 목사를 돕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크게 목양과 감독의 일로 나뉩니다. 그리고 떠돌이 순회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필요치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게 된 시기에는 감독이 장로보다 우위의 직위로 발전하여 감독은 오늘날의 담임목사 또는 교구책임자, 곧 감리사나 감독 또는 지방회장이나 노회장과 같은 직책을 수행하였고, 장로는 감독의 지도아래 있는 지교회를 맡아 담임하거나 감독이 있는 중앙교회의 부목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집사들은 물론 장로들을 돕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집사직을 거쳐서 장로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나 성공회 또는 정교회와 같은 정통교회들에서는 감독을 주교, 장로를 사제, 집사를 부제 또는 보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이후로 사제 곧 장로를 목사로, 부제 곧 봉사자를 집사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앞서 설명한 떠돌이 순회목회자들 가운데 있었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다케』란 책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 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써 밝혀질 것입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인정받고 진실한 모든 예언자가 지상에서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심판받지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옛 예언자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영으로 말한다면 “내게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시오” 하거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빈궁한 이들을 위하여 달라고 하거든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 마시오.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성장을, 2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3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설명한 글입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며(1:1),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며(1:2),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며(1:3),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1:4)고 하였습니다.

1장 4절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위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목적을 설명한 글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1:4b),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1:5-7)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힘써야할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고(1:8), 믿음의 걸음에서 실패치 않고(1:10),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입도록 하려는 것(1:11)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상기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1:16)을 확실히 믿고, 진리가 마치 샨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밝히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사사로이 풀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자는 2장 2절과 18절에 나타난 대로 방탕주의를 표방할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부정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곧 세상과 육체를 하나님보다 못한 낮은 단계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다른 부류는 방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므로 금욕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고, 방탕주의는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도 좋다고 보아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바로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2장 17절에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핵심은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죽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이 이뤄지는 시점을 주의 재림의 때로 설정해 놓

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이뤄지는 구원은 이 때에 이뤄질 약속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뤄지는 모든 축복은 사실상 영적인 것입니다. 굳이 육체적인 것이 있다면, 병고침이나 기도응답과 같은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축복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베드로는 3장 8절부터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통해서 신앙성장의 8 단계를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긴 하지만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언급되었습니다. 믿음에서 한 계단 발전한 단계가 덕입니다.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우애, 형제우애 위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

러분과 저는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8이란 숫자는 기독교복음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성숙의 8단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 상위 단계인 사랑의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십시오.

· 236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요한서신

요한서신은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기록연대와 장소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일서는 편지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회람편지로 보아진다. 그러나 요한이서와 삼서는 분명한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수신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택함 받은 부인”인데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내어진 개인 편지이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 나타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이들을 일컬어 “거짓 선지자,” 혹은 “미혹케 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했다. 그들은 예수의 성육신 즉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으며, 도덕적으로 방탕하였고,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의 성육신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요한이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와 진보주의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도록 권하고 있어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로서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영접치 않는 자로써 본받아서는 안될 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디메드리오는 본받아야 할 자로 추천 받고 있다.

1. 요한일서의 이단: 영지주의(gnosticism)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false prophets, 4:1), “미혹케 하는 자들”(deceivers, 2:26), “적그리스도”(antichrists, 2:18; 4:3)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영지주의는 죄를 설명하고 세상의 악과 고난을 해명하려는 시도였다. 영지주의는 모든 물질은 전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악하며 영(靈)만이 선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물질과 영은 모두 영원하며 그것들은 태초로부터 그리고 태초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세계는 바로 이 악한 물질에서 생긴 것이며 따라서 태초부터 세상은 악한 물질, 즉 흠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은 또 다른 결론을 가져온다. 물질이 전적으로 악하고 영(靈)이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면 그분은 물질을 만지거나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실 수 없다. 모든 생성(生成)은 하나님이 일련의 에이온(aeon) 또는 유출작용을 통해서 내보내신 것이다. 각 유출은 신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고 신을 모르게 된다.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유출은 신과 무한히 멀어지고 무지하게 되며, 결국 신과 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멀어지고 무지하며 적대적인 유출이 세상의 창조자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흔히 이 열등한 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그들은 영이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몇 가지 결론들을 갖는다.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도 악하며 특별히 육체도 악하다고 말한다. 만일 육체가 악하다면 성육신 같은 사건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육을 입으실 수가 없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며 단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유령과 같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며 피와 육을 가진 참 사람이시라고 주장한다(4:2).

더욱이 육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악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부도덕하게 살거나 육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어둠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노라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1:6).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gnosticism)라 하는데, 그노시스(gnosis)는 영적 지식 또는 신비적 직관을 말하고, 그노스틱(gnostic)이란 단어는 지식을 자랑하는 지성인을 의미한다. 그노스틱주의자, 즉 영지주의자는 사람의 영혼을 악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의 불꽃으로 생각한다. 영혼은 육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신으로부터 유출된 모든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과 암호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지식인만을 위한 것이요, 단순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지식에 오를 수 없다. 따라서 교제는 깨어지고 사람들도 그러한 종교를 지적으로 해득할 수 있는 자들과 단순하여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자들로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형제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함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파괴시키며 도덕과 참된 사귀어 깨뜨린다. 이 서신이 쓰인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설교]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요일 1:1-10)

요한일서는 저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록연대와 장소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편지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 읽었던 회람편지로 믿어집니다.

요한일서의 기록목적은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모두가 “형제 사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각 장별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장의 내용은 ‘사귀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귀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귀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귀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귀로 들어왔던 분이고, 눈으로 보아왔던 분이며, 주목해왔던 분이고, 손으로 만져왔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으며, 함께 먹고 마셨고 사귀었던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생각이나 머리 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었던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어 속에 계시다가 인간세계에 나타나셨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 속에 계셨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귀어 속에 계셨고, 이천년 전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어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사귀어”를 가져야 할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어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와 같은 사귀어의 축복

속에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을 갖고, 또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도 사귀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귀의 시간이고, 예수님과의 사귀의 시간이고, 성도들과의 사귀의 시간인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어두움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고난’을 상징합니다(시 112:4, 사 5:30, 애 4:8).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합니다(욥 18:6, 엡 5:11). 어두움은 ‘타락’을 상징합니다(롬 13:12). 어두움은 ‘미움’을 상징합니다(요일 2:9-10). 어두움은 ‘영적 소경’을 상징합니다(행 13:11).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욥 10:21-22).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합니다(마 22:13). 어두움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 받아 빛의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일을 본 받아 빛의 일을 행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귀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빛의

일을 본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의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권세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혼돈과 공허를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빛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가는 경험들을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귀어 지속될 것이요, 사람들과의 사귀어도 지속되어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빛의 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어”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귀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사귀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2장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는 증거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와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 자입니다. 만일 죄를 범했다라도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주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3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빛의 일이고, 살림의 일입니다. 빛의 일과 살림의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빛의 일과 살림의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명은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빛의 일을 하였고, 살림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18절부터 29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며, 하나님과 사귀어 없는 자입니다.

제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이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간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4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

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4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다같이 읽겠습니다.

(7)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8)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4:7-24).

제5장의 내용은 1-4장까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일곱 가지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과 사귀어 갖는 자'란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설교]사랑의 한계(요이 1:1-13)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서신인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지역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로부

터 교회를 보호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도록 권하고 있어서, 요한일서를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들'의 '서로 사랑'에 대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인 장로와 봉사자인 집사와 평신도인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사도 장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장로들은 치리나 관리보다는 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집사'는 문자적으로 보면, '봉사자', '일군', '청지기'란 뜻이기 때문에 평신도, 장로, 사도,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누구나 다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교직으로 인식된 역사적 과정에서는 '집사가 목사인 '장로'를 돕는 자로, 목회를 보조하는 자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사'는 오늘날의 '전도사', '준목', '강도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집사 목사'로까지 그 역할이 다양하게 변천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회 내의 모든 목사들을 설교와 교육을 담당할 '목회 장로'로, 평신도 장로를 '치리 또는 관리 장로'로, '전도사'를 '목회 장로'를 돕는 자 또는 목회를 보조하는 자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권사'의 성서적 근거는 디모테전서와 디도서에서 말한 '늙은 여자' 또는 '참 과부'에서 찾을 있습니다. 성서나 역사나 여성이 장로직이나 집사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늙은 여자' 또는 '참 과부'들은 오늘날의 권사직에 해당되는 일들, 예를 들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딤후 5:5) 힘쓰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딤후 2:4)하는 일들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오늘날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이 모든 교직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남녀 집사들이 연세가 많아진 후에도 장로직에 오르지 못할 경우, 남녀권사로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직인 '관리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임기와 안수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개교회나 교단이 법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나

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은 교직자든 평신도든 피차 서로 사랑하고 이단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의무를 지닌 약속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녀”란 말로써 표현될 수 있는데, “부녀”란 ‘숙녀’를 뜻합니다. 또 “부녀와 그의 자녀”로 표현된 교회와 성도는 택하심을 입는 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장로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로써 이 “부녀와 그의 자녀” 곧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에게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7절), 곧 미혹하는 자들이며, 적그리스도들인 이단자들은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건 없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

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요한 서신에 언급된 '서로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보다 열등하고 저급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에 비해서 '서로 사랑'과 '사랑의 한계'를 말한 요한서신의 사랑법은 월등하게 저급하다는 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는 자공심과 자존감이 너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애'가 적당하면 자공심과 자존감이 생기고, 지나치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하며, 부족하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 가까운 부모와 형제자매 또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사랑하면서 일가친척과 교우들은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집밖에서 남들한테는 친절할 말, 좋은 말만 하면서,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거칠고 상처받을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아무리 사랑해서 그랬노라고 말해도, 사랑이 전혀 아니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은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일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이란 말이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도 그 사랑이 전혀 무가치하고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옳은 방법 또는 옳은 표현은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가보다는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 반드시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정의가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받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뺨을 맞고 왼 뺨을 돌려대면서 또 더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정의로운 사랑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든지, 믿음이나 전도나 정의를 위해서 박해나 시련을 겪는다면 목숨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불길처럼 솟아오른다면 잘하는 것이고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악행을 더욱 키우고 부추기는 것에 불과한 매우 불행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그와 같은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불나비사랑’입니다. 불나비 사랑방식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죽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때로 율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천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 혹은 긍휼과 같은

행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정의로운 사랑을 결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혹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도와서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숨통을 조여 죽이는 행위들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 끝에 찾아낸 절묘한 방식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성품을 함께 지닌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사랑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공존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살면, 정의가 죽고, 정의가 살면, 사랑이 죽기 쉽습니다. 사형제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죄 범한 인간을 살려주자니, 정의가 희생되고, 죄를 벌하고 징계하자니, 사랑이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범한 인간들을 용서하면서 또한 그들의 죄를 벌할 수는 없는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한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벌했다는 측면에서 정의를 살리고, 인간을 용서했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살리며 또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더하기 표식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랑과 사랑의 한계 모두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표시였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중요성은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밝힌 것처럼,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책임을 느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사랑은 기술을 연마하듯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이뤄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경험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집니

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바울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요한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선한 것을 본받으라(요한삼서 1-12절)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로써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영접치 않는 자로써 본받아서 안 될 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데메드리오는 본받아야 할 자로 추천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송(宋)나라에 술을 만들어 파는 업주가 있었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고, 고객에게 무척 친절하였지만, 술이 팔리지 않아 만들어 놓은 술이 변질되어 버리기 일췌였습니다. 업주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에 사는 양청(楊靑)이란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가 답하기를, “자네 말이야, 집에서 사나운 개(猛犬)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 술을 사러간 고객에게 으르렁대고 물려고 덤비니, 누가 자네 집으로 술을 사러 가겠는가?”고 했다고 합니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크고 작은 집단이든 간에 사나운 개가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였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란 ‘양육 받음’이란 뜻인데, 그는 양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할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권면이 요한삼서의 기록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삼서의 수신자이며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삼박자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이런 지극한 사랑과 축복기도를 받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가이오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매우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떠돌이 순회전도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게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본문 5-6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선행은 순회전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선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선행들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하늘의 음성과 귀신의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7-8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순회전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일로써 목회자의 일에, 전도자의 일에, 선교사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란 '양육 받음'이란 뜻인데, 그는 양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할 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디오드레베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꾀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도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으뜸되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동기와 방법이 나빴을 경우일 것입니다. 고객이나 동료를 향해서 으르렁대고 물어 찢으려고 사정 없이 덤비는 사나운 개와 같은 경우일 때가 으뜸되기가 나쁜 경우입니다. 요즘 경영에서의 화두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교회도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같은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짜 최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 최고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최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으뜸되기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반드시 가짜란 사실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판치는 집단은 앞서 한비자의 글에서 으르렁대는 사나운 개 때문에 술집이 망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장 10-12절에서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것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나 남의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항상 자신이나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부단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은 곡식 사이에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쪽정이거나 가라지일 것입니다. 가짜가 언제나 큰소리 치고 가짜가 언제나 고개를 쳐드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참 지도자의 모습은 겸손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멸시하고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 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중상모략하였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훼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오드레베는 반드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본문 10-11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앞서 언급한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데메드리오가 그 일로 못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는 취지로 요한삼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13절).

둘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15절).

셋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리는 자입니다(23절).

넷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입니다(25절).

다섯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입니다(27절).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그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거나 성경의 권위와 변화의 능력마저 무시하는 건 스스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유명브랜드의 일류상품이라고 가정해 보시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가짜요 모조품이 됩니다. 가짜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진짜인 유명브랜드를 닮으면서 유명브랜드를 가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일부 잘못된 신앙인과 교회들을 닮으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누구건 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면, 10절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악한 말로 망령되어 폄하하며 무시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가짜를 보고서 진짜를 폄하한다고 진짜가 가짜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잘못된 인물이 아닌지, 값싼 은혜와 값싼 신앙에 젖어 잘못된 삶을 사는 가짜 신앙인이 아닌지 반성하고, 채찍질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뵈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끝내는 저주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것을 본 받는 자가 되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단히 찾는다면, 그분으로부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란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삼박자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예수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유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유다서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물과 외경인 『모세의 승천기』나 외경 『에녹서』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다서는 유다가 순회하며 설교했던 한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서신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방탕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1. 유다서의 이단자들

유다서 4절에 언급된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서의 이단자들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에 찾아들어온 이단자들이며 다수이다. 그들을 목자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은 떠돌이 전도자들이다(12절).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 자들은 방종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었다(10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다.

넷째, 이 이단은 이원론의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홀로 하나이신 주재”(4절)라는 말씀이나 마지막 축도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25절)에서 “홀로”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상의 세계에 여러 신들의 계층이 있다고 여긴 자들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고등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열등한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았다.

[설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1:1-4)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유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유다서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물과 외경인 『모세의 승천기』나 외경 『에녹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는 유다가 순회하며 설교했던 한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서신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방탕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이복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마 13:55). 이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요 7:5).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후의 일인 듯싶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지도자로(행 15:13) 부상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란 표현을 썼고, 2장 11-12절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이복동생들 가운데 막내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이복형제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고(약 1:1), 유다(유 1:1)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요 7:5).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또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친 형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모신 혈육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낮춰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야고보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허구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상황증거인 것입니다. 남이 아닌 친형제들이 그것도 한 때는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다서에 나타난 성도들에 관한 호칭입니다. 유다서 1절은 성도를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르심을 입은 자”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를 고르는 일을 간택(揀擇)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라 뽑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뽑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주실 자를 이미 만세전에 간택하셨고, 간택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얻은 자’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란 뜻입니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로 뽑힌 자가 시아버지인 임금과 남편인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정권의 쟁탈과 갈등의 틈새에서 있었던 세자비로서 임금과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듬뿍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일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러시아 당국은 인질범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국가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충만함까지 빌어 주었습니다.

셋째, 유다서에 나타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차별 없이 함께 나누는 구원’으로, 믿음을 ‘단번에 결정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은혜요,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단 한번에 결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과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진 유다서의 기록목적은 이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한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다서에 언급

된 이단자들은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부정하였고, 육체를 악하게 생각하면서도 금욕하기보다는 음란을 일삼는 타락한 무리였습니다. 이 타락한 무리에게 유다서는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무리에게 저주의 심판이 예비되어있음을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집트에서 구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던짐을 당했고, 간음과 동성애의 극한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은 불과 유향과 연기로 멸망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은 꿈꾸는 자들처럼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한다고 하였습니다(5-8절). 이들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15절).

두 번째로는 세 명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샴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여 아벨을 살해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여 해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였고, 울무를 놓아 우상을 숭배하게 할뿐 아니라 음란에 빠지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대적하였다가 지진에 삼킴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행동을 10절에서는 이성 없는 자들의 행동, 짐승 같은 행동, 본능에 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자

들은 장차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자들의 해악성을 들어서 경고하였습니다. 12-13절에서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의 멋들어진 시어(詩語)들로 이단자들의 해악성을 열거하였습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깊은 흑암의 구덩이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것이 이단자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결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죄악성을 들어 경고하였습니다.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利)를 위하여 아침”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것을 누룩처럼 퍼뜨리는 자들만이 이단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물을 흐려놓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악자들 또한 이단자들의 범주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17-19절).

마지막으로 유다서에는 우리 성도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결론부분 20절부터 25절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임

니다. 이단사설은 안 됩니다. 사도들이 주께 받아서 전해준 신약성서의 가르침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서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행동 곧 믿음과 실천은 신약성서가 가르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며 인침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리적인 이단사상과 윤리적인 부패와 부도덕과 모든 적대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날이 멀지 않음을 굳게 믿고서 영생의 복이 이뤄질 그리스도의 공훈의 날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훈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잡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훈히 여기는 자세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듯이 영적인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옷을 싫어하듯이 영육이 더러워진 이들의 더러움을 멀리하되 그들을 공훈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건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24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25절).

· 264 · 신약성서 27권의 핵심메시지

요한계시록

1. 계시록의 저자와 기록연대

계시록은 황제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 일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다른 요한 일 가능성도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계시록의 저자는 첫째,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둘째, 구약성서의 해석자였으며; 셋째, 환상을 보는 묵시문학자였으며; 넷째,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다섯째,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계시록은 이와 같은 자질의 소유자인 목회자가 쓴 설교이다. 이 설교는 보통의 원고 설교나 목회자가 쓴 회곡이 아니라,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시청각 설교(Audio-visual Sermon)이다.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설교 일뿐 아니라, 저자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시기적절하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훌륭한 목양적 설교 말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결같은 영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 계시록의 기록목적과 주제

계시록은 처음부터 회람용으로 쓰였으며,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 계시록의 본문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적고 있다.

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짓선지자의 이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록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했었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칼의 위협과 거짓선지자(666)의 이단 사설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3.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이란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네 개의 환상은 다시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되는 일곱 개의 환상으로 나타난다. 이 일곱 개의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인 중간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각각의 환상에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각각의 환상에서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환상들은 신자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박해자와 불신자의 불행한 최후를 경고하고 있다.

		제1화 (畫)	제2화 (畫)	제3화 (畫)	제4화 (畫)	제5화 (畫)	제6화 (畫)	제7화 (畫)		
머리 말	천 상	인자 1:19-20	보좌방 4-5장	큰무리 7장	큰무리 14장	중간 계시	주의재림 19장	새하늘 과 새땅 21-22 장	맺 는 말	
	지 상	일곱 교회 2-3장	일곱인 6장	나팔 재앙 8-9장	대접 재앙 15-16장	10-13장 중간 계시 17-18장	천년왕국 20장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의 특징은 분리와 반복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계시록 전체 내용의 구조가 분리와 반복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표로서 간단히 그려 볼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시록에는

머리말과 맺는말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는 일곱 장의 큰 그림(繪畵)으로 되어 있다. 이 일곱 장의 그림은 제 5화(畵)인 중간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각각의 그림에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각각의 그림에서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들 그림들은 신자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박해자와 불신자의 불행한 최후를 경고하고 있다.

제 1화(畵)는 박해의 광풍을 금방이라도 잔잔케 하실 인자의 모습이 상단에, 거센 풍랑 만나 몹시 괴로워하는 일곱 교회가 하단에 그려져 있다. 제 2화(畵)는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잠깐 동안 장악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울 하늘 보좌 방의 화려한 모습이 상단에, 일곱 인 재앙에 나타나는 지진, 기근, 전쟁, 순교, 천재지변과 같은 역사의 악순환이 하단에 그려져 있다. 제 3화(畵)와 제 4화(畵)는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장면이 상단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각각 하단에 그려져 있다. 이들의 모습은 방주에 안전하게 피신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엄청난 물난리를 만나 멸망당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 민족과 홍해 바다에 빠진 이집트의 마병대와 같기도 하고, 소알 성에 안전하게 피한 롯과 두 딸과 유향과 연기와 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 같기도 하다. 제 4화(畵)는 제 3화(畵)보다도 그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저주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 5화(畵)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고난당하는 장면이 좌측에 그려져 있고, 박해자들과 그들의 나라가 천벌을 받는 장면이 우측에 그려져 있다. 제 6화(畵)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림이 상단에, 지상에서의 백보좌 심판과 천년왕국의 시작이 하단에 그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제 7화(畵)는 통합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평화스런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큰 그림들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요한은 먼 옛날 이미 시청각 설교 방법

(Audio-visual Preach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의 설교는 정체되어 있던 이 그림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배교의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다.

계시록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불신자들을 완전히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상과 지상이 반드시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상은 구원을 그리고 지상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두 길은 다시 만나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이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은 구원의 길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우상숭배에 머리를 조아린 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2-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온다. 물론 이 교회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이들 교회의 머리 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의 배후에 화려한 인자의 모습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잔잔하여 짐과 같이(막 4:35-41) 능력의 주께서 일곱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하는 일곱별을 손에 쥐고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몰아닥친 풍랑은 곧 잔잔하여 질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교회는 지상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1	천상(1:19-20)	인자의 환상/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성도의 구세주
	지상(2-3장)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박해와 고난

6장에서는 소위 인 재앙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인 재앙은 사

실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승리, 전쟁의 파괴, 기근, 죽음, 신앙으로 인한 순교, 천재지변, 평화에 관한 표현으로서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45장에서는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윤회의 역사도 아니요, 오직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천상에, 인류는 지상의 존재임이 부각되고 있다.

2	천상(45장)	하늘 보좌 방과 전경/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상(6장)	일곱 인(역사의 악순환), 고해 같은 세상

8-9장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단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이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휴거의 의미는 전혀 다른 대목에서 설명된다. 7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회화적(繪畵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던 것과 같다. 또 출애굽기 14-15장과 계시록 15장 2-4절에 나타난 장면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구원의 기쁨과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고, 이집트 마병대는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것 같은

홍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 가는 모습과 같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 서도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면 서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다(눅 17:26-29).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마치 억류된 자국민을 구해 내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특공대를 파견하여 구출해 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또한 지상의 재앙과 천상의 큰 무리는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묘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3	천상(7장)	이스라엘 자손 중 인 맞은 자 십 사만 사천명과 구원받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구원
	지상(8-9장; 11:15-19)	일곱 나팔 재앙/ 저주와 심판

15-16장의 대접 재앙도 8-9장의 나팔 재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 3배가된다는 점이다. 나팔 재앙의 강도가 33퍼센트 일 때, 대접 재앙의 강도는 100퍼센트가 된다는 것이다. 14장 역시 7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구원받은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들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된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할 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문자적 성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도의 구원이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4	천상(14장)	십 사만 사천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
	지상(15-16장)	일곱 대접 재앙/ 극심한 저주와 심판

10-13장은 성도의 고난을 삼년반으로 묘사한 중간계시를 보여 주고 있고, 그 반대로 17-19장에서는 성도에게 박해를 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심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들은 중간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입증하는 구원의

행위인 것이다.

5	중간계시(10-13장)	대 환난/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삼 년 육개월의 박해와 고난
	중간계시(17-18장)	대 심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20-22장에서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짧은 성도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게 된다. 이 영광의 삶은 부활의 몸, 구속된 몸, 혹은 변형된 몸으로 시작된다. 성도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상 혹은 낙원에서 선취적으로 이 삶을 맛보며 누려왔으나,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다.

6	천상(19장-20:3)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과 심판/ 두 짐승이 유허 못에 들어가고 사단이 간힘
	지상(20:4-15)	천년 왕국과 백 보좌 심판/ 사단이 유허 못에 들어감

그러나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新天新地)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21-22장의 말씀은 이런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7	천상과 지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천상과 지상의 통합
---	-----------------------	-----------------------

이와 같이 계시록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구성된 일곱 장의 큰 그림으로 설명된 시청각 설교이며, 마음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긴 멋진 한 편의 설교인 것이다.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현실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인내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설교]성도들의 승리의 노래(계 15:2-4)

계시록은 황제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했던 로마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일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다른 요한일 가능성도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시록의 저자는 창조주 신앙의 소유자였고, 구약성서 내용의 해석자였으며, 환상을 보는 묵시문학자였고,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와 같은 자질의 소유자인 목회자가 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보통의 원고설교나 희곡이 아니라,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 설명한 시청각 설교(Audio-visual Sermon)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설교일 뿐 아니라, 당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훌륭한 목양적 설교였습니다.

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계시록의 본문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적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교리에 맞서야 했었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이 두 가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에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바로 잡히게 되고, 끝

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서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과 심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승리를 환상(幻想)으로 보여 줌으로써,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를 주며, 박해로 인한 배교의 위협과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움의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위기위탈의 순간에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칼과 무력 앞에서 힘이 없어 당하기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승리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과 거짓 선지자의 회유와 무력 앞에서 힘이 없어 당하기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하나님,’ 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이란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환상은 다시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되는 일곱 개의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곱 개의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인 중간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각각의 환상에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각각의 환상에서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환상들은 성도들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박해자와 불신자들의 불행한 최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틀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불신자들을 완전히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천상과 지상이 반드시 문자적인 뜻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은 구원을 그리

고 지상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길은 다시 만나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은 구원의 길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우상숭배에 머리를 조아린 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계시록 2-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이 교회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 때문에 파선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이들 교회의 머리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의 배후에 화려한 인자의 모습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잔잔하여 짐과 같이(막 4:35-41) 능력의 주께서 일곱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하는 일곱별을 손에 쥐고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몰아닥친 풍랑은 곧 잔잔하여 질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교회는 지상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소위 인 재앙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 재앙은 사실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승리, 전쟁의 파괴, 기근, 죽음, 신앙으로 인한 순교, 천재지변, 평화에 관한 표현들로써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4-5장에서는 인류의 역사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윤회의 역사도 아니요 오직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인류는 지상의 존재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8-9장은 나팔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앙은 모

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에서 구원함을 받아 천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단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나팔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회화적(繪畵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14-15장과 계시록 15장 2-4절에 나타난 장면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구원의 기쁨과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고, 이집트의 전차부대는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것 같은 홍해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 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면서도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과 아브라함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면서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습니다(눅 17:26-29).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억류된 자국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포격을 가하고 특공대를 파견하여 구출해 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지상의 재앙과 천상의 큰 무리는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묘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15-16장의 대접 재앙도 8-9장의 나팔재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대접재앙이 나팔재앙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 세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팔재앙의 강도가 33퍼센트 일 때, 대접 재앙의 강도는 100퍼센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역시 7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구원받은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나

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할 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문자적 성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10-13장은 성도의 고난을 삼년 반으로 묘사한 중간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로 17-19장에서는 성도에게 박해를 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심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간계시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입증하는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20-22장에서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19장에서 백마타고 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짧은 성도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게 됩니다. 이 영광의 삶은 부활의 몸, 구속된 몸, 혹은 변형된 몸으로 시작됩니다. 성도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상 혹은 낙원에서 선취적으로 이 삶을 맛보며 누려왔으나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新天新地)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21-22장의 말씀은 이런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구성된 일곱 장의 큰 그림으로 설명된 시청각 설교이며, 마음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긴 멋진 한 편의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현실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인내로써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큰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 주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실 교회의 머리되시며 성도의 구세주 되심을 굳게 믿고서 박해의 폭풍이든 이단의 폭풍이든 생활의 폭풍이든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월계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있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혹 같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이기고 큰 환난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방 앞에 펼쳐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7:1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시련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에 비하면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믿고서 또 탄압하던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영원히 타는 불 못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고서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소중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3:10, 14:12).